

연구자료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연구자료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인 쇄 2016년 7월 13일
발 행 2016년 7월 15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 T. 02-859-2278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17-6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VC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전략 변화 등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관세장벽의 축소 등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조정비용(Coordinations costs)을 감소시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GVC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관리능력, 풍부한 재무자원, 국제표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며, 보다 많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다는 위협요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는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OECD 2007; UNCTAD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GVC와 한국 경제의 관계, 그리고 GVC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연관관계를,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수직분업활동이 촉진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GVC와, 특히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자료를 활용한 GVC와 중소기업의 관계, GVC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도식화하였다. 기존 연구는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사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수준이었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등 생산위치에 따라 이분화하였으며,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과 해외생산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생산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서로 비교 평가하였고,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지배구조 등의 이론적인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가치사슬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유통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다수 기업들에 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이 분배되어 있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UNCTAD 2010).

최근에 GVC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는 이유는 첫째,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가 가속되어, 수출입액이 각 국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에서 국가 및 산업 간 연관관계가 새롭게 가능해진 세계산업연관표(WIOD: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에 의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가간 · 산업간 상호 관계 또는 결정요소 등의 연구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의 GVC 모양이 스마일 곡선형태로 변화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생산 전, 그리고 생산 후 무형의 부가가치가 생산이라는 유형활동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혁신보다는 경쟁기업들에 비해 더욱 빠른 혁신이 필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중소기업 또는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혁신과정을 향상(upgrading)이라고 정의하였고 공정(process), 제품(product), 기능(function), 사슬(chain) 향상이란 형태로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소기업 관점에서 위와 같은 네 가

지 형태의 향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 향상은 기업 내부 생산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재고자산 회전을 증대 또는 폐기물 축소와 같은 기업의 독립적인 효율성 향상과 정시 배달 및 국제표준 공유와 같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간의 관계 효율성 향상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제품 향상은 경쟁기업들에 비해 새로운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중핵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 향상은 기업 내부 기능을 확대하여 부가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가치사슬 내에서 기존의 저부가가치를 생산하던 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 습득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사슬 또는 교차 향상은 기존 가치사슬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쟁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향상 중에서 공정과 제품 향상은 기능과 사슬 또는 교차 향상에 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향상이란 단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하여 지속적인 향상(upgrading)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경제의 관계를 부가가치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및 규제완화와 같은 한국 정부의 글로벌화 정책과 해외생산기지 및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확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세계 GDP에서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0.6%로 시작하여 2006년 최고점인 2.0%를 달성한 후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 성장은 계속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또는 정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라 무역통계의 중복계산이란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정도 또는 참여 단계에 따라 보다 정확한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GVC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가공무역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과 1980년대 이후 수입시장 자유화 정책에 따른 생산활동의 국제화로 급속히 성장해서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국가 상호간 경제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입이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총수출입량과 새롭게 계산된 부가가치 수출입량에 따라 비교하였다. 수출의 경우 1995년 총수출은 세계 총수출에 2.7%를 차지하였고 이 비중은 2008년까지 큰 변화 없이 2.7%에서 2.9%를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3%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서 3.3%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의 2.3%를 제외하고 1995년에서 2011년까지 2.4%에서 2.8%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 차이는 2008년 0.3%를 시작으로 2011년에 0.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세계 수입에서 한국 수입 비중인 총수입 비중은 1995년도 2.6%로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인 1998년도에 1.8%까지 감소하다가 2001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도에는 3.0%까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수입 비중 역시 총수입과 비슷한 패턴으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비중이 2.0%에서 2.3%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총수입과 부가가치 수입의 격차는 2003년도 0.4%에서부터 2011년도 0.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총수출입과 부가가치 수출입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 내에 해외에서 생산된(해외의 국내기업과 해외의 해외기업에 의한) 중간재(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품에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중간재들이 해외에서 일부 부가가치를 높여 역수입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정성훈 2014).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에서 한국의 산업별 현 시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TiVA Database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후반부에 비교될 UNCTAD의 해외직접투자 자료와의 산업구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을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계 부가가치 수출량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수출량의 합으로 대체하였다.

OECD가 제공하는 7년간의(1995년, 2000년, 2005년, 2008~11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총제조업과 각 산업의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1995년에 1.23에서 2011년에는 1.40

으로 14%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에는 14개의 산업 중에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이 2.35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았던 산업이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1.7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61,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39로 비교우위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83으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1.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1.37,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1.01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분석하였다. 2002년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14개의 산업 중에서 비금속광물산업이 4.21로 가장 높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3.58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5.95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3.01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비금속광물제품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 가공제품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의 관계를 부가가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이 GVC에 참여하는 유형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경쟁력을 생산지 기준으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산출하기 위해 OECD의 세계 총부가가치 수출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현위치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유형은 해외생산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며, 해외생산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총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 OFDI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자료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특히 OECD는 중소기업 구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량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총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량은 2002년 124조 5,762억 원에서 2013년 248조 1,834억 원으로 99%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총제조업에서 12.4%인 15조 4,51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1.7%인 14조 5,807억 원,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1.5%인 14조 3,110억 원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비중은 2013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한 산업은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으로 15.5%인 38조 4,223억 원을 생산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12.2%인 30조 3,491억 원,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0.5%인 26조 122억 원을 생산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14개 산업 중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2005년 현시비교우위지수 1.42로 국내생산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1.61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한국 총해외직접투자의 22.9%를 차지하는 3,200만 달러에서 1996년 그 비중이 역대 최고인 53.7%까지 증가했고, 2013년에 36.1%를 차지하며 918억 7,3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1980년 26.4%인 880만 달러

로 시작하였다. 그 비중은 1996년까지 점차 상승하여 53.7%인 28억 2,150만 달러까지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22.3%인 204억 5,0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부가가치 생산 비중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2013년도 제조업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 비중의 약 30% 수준에 미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은 2002년에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 17억 6,947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33%를 차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에 10억 1,992만 달러를 투자해 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의 투자액이 40억 3,285만 달러로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21.2%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9.2%를 차지하는 36억 5,115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를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와 수출입은행의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OFDI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5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2.28로 가장 높았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

업이 6.22로 2위,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5.33으로 3위를 하였다. 반면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1.99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의 지수가 4.48,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이 3.11로 2위, 3위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조합으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한다.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국내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조합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가로축으로,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 기준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도식화하였다.

도식화한 그래프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인 가로축 지점과 해외직접투자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인 세로축 지점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즉 부가가치 관련 지수와 해

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모두 1 이상이면 1사분면, 부가가치 관련 지수가 1 이하이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1 이상이면 2사분면, 두 지수가 모두 1 이하이면 3사분면, 그리고 부가가치 관련 지수가 1 이상이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1 이하이면 4사분면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 중에서 3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모두 저조한 산업을 의미하며, 2005년 기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등이 이에 속했고, 2011년 기준으로는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등 3개 산업만이 3사분면에 위치했다. 이에 속한 산업들의 속성을 볼 때, 대부분의 산업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지하자원 부재와 기술력 약세에 따른 경쟁열위산업이다. 즉 지역 특유의 우위도 열악하고 기업 특유의 우위도 낮고, 해외 자회사 통합 운영에 따른 내부화 특유의 우위도 없는 산업들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3사분면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산업들이다.

2사분면은 국내생산 경쟁력은 없지만 해외생산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그리고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등이 이에 속했다. 이 산업은 3사분면,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즉 생산 및 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켰고, 해외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

는 내부화 특유의 우위(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산업들이다. 특히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생산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외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자금 또는 경영능력과 연계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생산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다. 2005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만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한국이 생산지로서 지역 특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만큼의 내부화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즉 GVC가 더욱 확장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산업을 가리키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동해야 할 위치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든 연도에 1사분면 위치한 산업들이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은 2005년 기준 2사분면에서 2011년 기준 1사분면으로 이동한 산업들이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직

접투자에 약 30%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경쟁력이 없어 3사분면과 4사분면에 많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의 경쟁력을 측정 비교한 결과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위치한, 즉 해외직접투자에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업들에 비해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 분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진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소기업들의 생산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GVC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 축적을 기반으로 GVC 내부 또는 다른 GVC에서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으로의 향상(upgrading)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GVC의 고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도식화한 2사분면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우위가 없고, 해외직접투자에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 또는 제품 향상을 통해 기존의 GVC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기능 또는 사슬을 통해 동일한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이 있다. 셋째로는 GVC의 참여기업 또는 공급업체에서 선도 또는 중핵 기업으로 자신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서 소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문자위탁생산자(OEM)로 GVC에 참여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향상전략을 실행하여 제조업자 개발생산자(ODM)로 발전하고, 또 다른 향상전략을 통해 기업 자체 브랜드를 창설하면서 자체 상표생산자(OBM)로 GVC의 중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해외시장에 관한 수요, 경쟁자, 협력업체, 유통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전개하고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약점인 재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FTA 및 지역경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른 정보교환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연계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3사분면에 위치한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생산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모두 낮은 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들이 위치한 2사분면 또는 기타 산업들이 분포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3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산업의 고유한 성격이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타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의 성격이 지역 특유의 열위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지적 재산권 등 기업 특유의 우위로 극복이 가능한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해볼 때,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에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이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들로부터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GVC를 주도하는 해외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대·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3사분면의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을 전략적 투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산업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은 있지만, 규모가 크고 경쟁이 더욱 심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후에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향상시켜, GVC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은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상

대적으로 줄어드는 저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상대적으로 지역 특유의 우위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해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한 발전전략이다. 이러한 산업들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업 특유의 또는 지역 특유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들과 생산뿐만 아니라 R&D, 유통 등 GVC 전 생산활동에서 폭넓은 제휴를 통해 해외 다국적기업 주도의 GVC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는 국내 중소기업들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서 참여와 향상(upgrading)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간의 협업 개념이 단순한 R&D 협업과 같이 제한된 협업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활동에 연계된 협업으로 확장되어야 효율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이 제시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업생태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다국적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현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보다 많은 글로벌 생산활동이 GVC와의 연계로 집중된다는 의미는, 보다 많은 발전이나 혁신 또한 이러한 GVC에 참여 또는 GVC 내에서 향상(upgrading)이라는 단계 발전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GVC 중심의 산업 발전정책은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 GVC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능력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GVC 내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 또는 향상(upgrading)을 통해서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UNCTAD 2013).

둘째,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국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외향성 국제화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편협한 정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국제화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폭넓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또는 자국 내에 GVC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유인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로 새롭게 정립된 국가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해외수요와 국내 GDP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거 유인정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산업별 경쟁력 변화, 산업별 GVC와 FDI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외기업의 국

내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국제화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GVC를 지배하는 정도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넷째,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관점의 사회적 역량(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업생태계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복잡한 기업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축적된 가치로 정의되는 반면, 기업생태계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금전적인 장점으로 정의된다. 기업생태계의 성장은 비금전적인 장점과 이해관계자들간의 탁월한 상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이란 무형의 역량을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자산이란 참여자들간의 반복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설비, 시설, 기술과 같은 물리적 자산과 디자인, 경쟁력, 교육과 같은 인적 자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산은 기업생태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려면 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사회적 역량 구축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2. 연구 내용과 구성	30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1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38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38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배구조	39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선정기준	42
4.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경쟁력 향상 전략	45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경제	47
1.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47
2. 산업별 GDP 대비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49
3.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51
4. 글로벌 가치사슬 vs. 외국인직접투자	56
5.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58
제4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	65
1.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현황	66
2.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의 세계 GDP 공헌도	67
3.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	69
4.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76

5. 한국 중소기업의 총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OFDI 공헌도	78
6.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80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과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 전략 ..	86
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86
2.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92
3.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발전사례	96
가. (주)시몬느(Simone)	96
나. (주)이오테크닉스(EO Technics Co., Ltd.)	99
4.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촉진 전략 및 정부정책	10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4
부록 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118
2. 해외직접투자(Flows) 분석	127
1.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127
2.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130
Executive Summary	136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33
표 3-1. 산업 구분표	51
표 3-2. 세계 부가가치 수출	52
표 3-3. 한국 부가가치 수출	54
표 3-4.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56
표 3-5. 세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59
표 3-6.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61
표 3-7.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Stocks)	63
표 4-1. 한국 중소기업/대기업 제조업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	66
표 4-2. 한국 산업별 총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70
표 4-3.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71
표 4-4. 한국 중소기업의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 (2005년, 2008~11년)	73
표 4-5. 한국 대기업의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75
표 4-6. 한국 대기업의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 (2005년, 2008~11년)	76
표 4-7. 한국 총해외직접투자 및 제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77
표 4-8.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82
표 4-9.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2005년, 2008~11년)	83
표 4-10.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2002~12년)	84
표 4-11.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2005년, 2008~11년)	85

표 5-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기초자료)	87
표 5-2.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10규모 환산자료) ..	88
표 5-3.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기초)	93
표 5-4.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10규모 환산자료)	94
표 5-5.	(주)시몬느의 수상, 인증 획득 및 글로벌화 전략	98
표 5-6.	(주)이오테크닉스의 정부 R&D 지원자금 수혜실적	100
표 5-7.	(주)이오테크닉스의 수상, 인증 획득 및 글로벌화 전략	101



그림 차례

그림 2-1.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지배구조	42
그림 2-2.	다국적기업의 중소 공급업체 선정기준	44
그림 2-3.	스마일 곡선	46
그림 3-1.	세계 GDP에서 한국 GDP의 비중	47
그림 3-2.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 비중	49
그림 3-3.	산업별 GDP 대비 총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 (2011년 기준)	50
그림 3-4.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세계 IFDI에서 한국 IFDI의 비중)	58
그림 4-1.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비율	67
그림 4-2.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내 부가가치가 세계 GDP 공헌 비율 (제조업 부문)	68
그림 4-3.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Stocks)	78
그림 4-4.	한국 중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세계 OFDI(Stocks)에 대한 공헌 비율	79
그림 5-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포	89
그림 5-2.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포	95
그림 5-3.	시몬느 수출액	98
그림 5-4.	(주)이오테크닉스의 매출액 증가추세	100



부록 표 차례

부표 1-1.	제품속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118
부표 1-2.	재무 건정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119
부표 1-3.	생산 능력 관련 정부지원정책	120
부표 1-4.	표준과 인증제 관련 정부지원정책	122
부표 1-5.	유연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122
부표 1-6.	지정학적 위치 관련 정부지원정책	123
부표 1-7.	정보통신기술의 수준 관련 정부지원정책	123
부표 1-8.	재능과 혁신능력 관련 정부지원정책	124
부표 1-9.	내재적 강점 관련 정부지원정책	126
부표 2-1.	한국 해외직접투자(Flows)	128
부표 2-2.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 (Flows, 2002~12년)	129
부표 2-3.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Flows, 2002~12년)	131
부표 2-4.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Flows, 2005년, 2008~11년)	132
부표 2-5.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Flows, 2002~12년)	134
부표 2-6.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Flows, 2005년, 2008~11년)	13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VC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 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의한 다국적기업들의 전략 변화 등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관세장벽의 축소 등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및 기타 경제활동의 조정비용(Coordinations costs)을 감소시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GVC에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GVC 참여는 중소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에서 전후방 파트너들과의 연계된 협업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방식과 첨단기술 같은 선진지식의 습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원과 경험이라는 태생적인 열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자체의 독립적인 글로벌화 전략보다 GVC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준호, 김종일 2007).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관리능력, 풍부한 재무자원, 국제표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며, 보다 많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다 는 위협요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가 많은 기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들 역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OECD 2007; UNCTAD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 보고, GVC와 한국 경제의 관계, 그리고 GVC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연관관계를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과 구성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및 기본적인 개념이 설명되고, 제3장에서는 GVC와 한국 경제와의 관계가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세계 부가가치 수출,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한국의 부가가치 생산 및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대·중소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와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세계 통계와 비교하여, 한국 대·중소기업의 현 위치와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된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6장의 결론에

서는 제5장에서 도출된 GVC 참여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이 포함된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제적 수직분업활동이 촉진되면서 가치사슬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GVC와 특히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자료를 활용한 GVC와 중소기업의 관계, GVC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을 2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이준호, 김종일(2007)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부터, 유형, 지배구조 등 개념적인 사항을 면밀히 설명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이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GVC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독립적으로 수출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에 자본, 기술 또는 기타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GVC의 편입 또는 참여하는 방식이 더욱 쉽고 빠른 국제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해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주장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자들은 OECD가 권고한 GVC 참여기회의 인식, 협력을 통한 GVC 참여, 지역 중소기업 혁신능력 증진, 지적재산권 관리능력 향상, 제품과 생산과정 관련 국제기준 취득을 강조하면서 국내기업의

GVC 편입 사례를 제공하였다.

UNCTAD(2010)에서는 GVC의 개념 및 형태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적인 안전성 확보,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기술 및 정보 획득 등과 같은 기회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영관리능력, 재무적 자산, 국제표준취득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능력 등에서 열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VC의 기본적인 정의에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까지 포함시키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관점에서 GVC의 구성 기업들간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전체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적절한 기술개발, 기술향상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국제표준 획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촉진, 클러스터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권고하며, 이에 따른 기업 사례를 제공하였다.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2013)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지에 따라 세분화할 수 없는 자료상의 원천적인 결점에서 발생하는 기존 무역통계의 중복계상이란 문제점은 세계의 분업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GVC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간의 상호 연계관계를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통해 교역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으며 글로벌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GVC의 확대에 대비하여 수출품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이준호, 송창석, 이춘우(2013)에서는 GVC와 중소기업 국제화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였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편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직접수출에 치중된 사고, 제조업에 국한된 사고, 대기업과의 대립적인 사고, 그리고 GV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

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별 특성에 따른 GVC 지도 작성과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황 파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향상(upgrading) 지원, 한국 기업 중심의 GVC 구축이라는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편입 유형에 따른 기업 사례를 제공하였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1	과제 명	이준호, 김종일. 2007.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뉴브리징연구 07-01,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내용	GVC 개념부터, 유형, 지배구조 등 개념적인 사항을 면밀히 설명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방법	개념 정립 및 국내 기업의 GVC 편입 사례 연구
2	과제 명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10. "Integrating Developing Countries'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연구내용	GVC를 기본적인 정의에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까지 포함시키는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GVC의 구성 기업들간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며 정책적 시사점 제공
	주요 연구방법	국가별 산업별 GVC 분석 및 사례 연구
3	과제 명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Issue Paper Series, No. 2013-4, 한국은행.
	연구내용	EU의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사용하여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간의 거시경제적 연관관계 분석
	주요 연구방법	국가별 WIOD 비교 분석
4	과제 명	이준호, 송창석, 이춘우. 2013.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 기본연구 13-11,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내용	GVC과 중소기업의 국제화와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였고, 국내 중소기업들을 GVC에 편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추진과제 제시
	주요 연구방법	개념 정립 및 국내 중소기업 사례 연구
5	과제 명	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2014. "Integrating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Policy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Issue Paper, No. 6.
	연구내용	GVC의 개념과 산업별 GVC의 구조적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GVC에서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기준 설명
	주요 연구방법	산업별 GVC 분석 및 사례 연구

표 1-1. 계속

6	과제 명	정성훈. 2014.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 정책연구시리즈 2014-15,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내용	EU의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사용하여 한국의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 비교 및 GVC 참여와 한국 산업구조 변화 분석
	주요 연구방법	개념 정립 및 WIOD 통계 분석
7	과제 명	OECD and World Bank Group. 2015. "Inclusive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tions in trade and complementary area for GVC integration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submission to G20 Trade Ministers Meeting Istanbul, Turkey, 6 October 2015.
	연구내용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는 장애요소로 국가의 제도적 또는 사회적 기반 등의 외부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GV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배출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효율적인 유통체계와 정보 통신망 구축 강조
	주요 연구방법	개념 정립 및 국가간 통계 비교 분석
8	과제 명	Asian Development Bank(ABD). 2015. "Integrating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Challenges and Policy Actions in Asia."
	연구내용	중소기업들은 GVC 참여의 장애요소로 치열한 경쟁, 국제화, 무역 자유화, 그리고 경영능력에서의 경쟁력 열위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기업가 친화적인 경영환경, 금융관련 자원과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강조
	주요 연구방법	ABD Survey 분석, 국가별 산업별 GVC 비교 분석
9	과제 명	고희채. 2015. 「한·중·일·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Global Strategy Report 15-00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연구내용	OECD·WTO의 TiVA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의 산업별 비교우위 비교, 국가별 산업별 진출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연구방법	국가별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 분석

APEC(2014)은 GVC의 개념, 산업별 GVC의 구조적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GVC에서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기준을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s)과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으로 구분하고, 외재적 강점은 제품속성(Product Attributes)과 기업속성(Company Attributes)으로 나뉘며, 제품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

는 품질이며, 그 다음은 가격과 배송능력으로 세분화되었다. 기업속성은 재무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표준과 인증제(Standards and Certificates), 유연성(Flexibility), 지정학적 위치(Geographic Location), 정보통신기술의 수준(The ICT Level of Business Operation), 재능과 혁신 능력(Talent and Innovation Capacity)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내재적 강점은 사업운영의 건전성(Business Integrity)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강조하였다(그림2-2 참고).

정성훈(2014)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무역 구조와 산업별 비중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와 총무역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공헌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한국 제조업들이 GVC에 참여함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별 고용, 소득, 생산성, 그리고 GVC 참여의 득과 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GVC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 기술 및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국내에 유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는 한국 경제성장은 해외 최종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치밀한 해외시장 개척과 분석을 통해 GVC의 해외 참여기업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특화된 생산 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OECD and World Bank Group(2015)에서는 GVC 확대는 수준 높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능력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방식은 매우 다차원적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출기업의 공급업체로 GVC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는 장애요소로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열위도 있지

만, 국가의 제도적 또는 사회적 기반 등의 외부적인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GV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배출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을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강조하였다.

ABD(2015)는 GVC가 확대되는 원인을 중요 생산요소에 접근,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시장 진입으로 설명하며, GVC는 중소기업들에 부품 또는 기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의 역할을 부여하고, 기술과 경영 능력의 전수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소를 치열한 경쟁, 국제화, 무역자유화, 그리고 경영능력에서의 경쟁력 열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금융 관련 지원과 기술 개발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희채(2015)의 연구에서는 OECD·WTO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사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의 무역 총액과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구조 및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의 가치사슬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산업에 연계된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하는 수출확대전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로의 향상(upgrading)을 지원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에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을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들로 도식화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사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수준이었다.

둘째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국내생산과 해외

생산이란 생산지 위치에 따라 이분화하였으며,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과 해외생산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생산과 해외직접 투자를 활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서로 비교 평가하였고,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가치사슬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상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유통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란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다수 기업들에 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이 분배되어져 있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UNCTAD 2010).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최근 GVC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는 이유는 첫째,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가 가속되어, 수출입액이 각 국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은 국외에서 생산된 많은 중간재들을 국내로 들여와 마지막 부가가치를 포함시킨 후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의 총량과 국내의 GDP에 기여하는 국내 부가가치 활동과의 격차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 수출에서 국가 및 산업 간의 연관관계가 새롭게 가능해진 세계산업연관표(WIOD: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¹⁾에 의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가간의 또는 산업간의 상호 관계 또는 결정요소 등의 연구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생산의 분업화가 한 국가의 산업간을 넘어 점차 국가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산이 궁극적으로 어느 국가의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하는지

1) 세계산업연관표는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표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EU 27개국을 포함한 40개의 개별 국가와 그 외의 나라(Rest of the World)로 구분하고 산업은 EU가 사용하는 NACE Rev.1에 따라 35개(14개 제조업 + 21개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또는 특정 국가의 최종수요가 결국 어느 국가의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하였는지와 같은 국가간 상호 의존관계를 새롭게 규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6개 정도의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생산이란 유형활동을 중심으로 생산 전 무형활동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및 물류/구매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생산 후 무형활동으로 물류/유통, 마케팅 및 서비스 활동이 있다. 이러한 GVC의 모양은 최근에는 스마일 곡선형태로 변화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생산 전·후 무형활동의 부가가치가 생산이란 유형활동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그림 2-3 참고).²⁾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배구조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는 가치사슬간 또는 동일한 가치사슬 내 다른 기업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들을 관리 및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과 다국적기업 또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공급업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구분된다.

첫째, GVC의 기업간 관련성 및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구조는 국제 조달 상품의 가치사슬, 생산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 구매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 그리고 수직통합 가치사슬로 구분된다(ESCAP 2009). 최근 GVC에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역할은 생산자 구동 가치사슬에서 글로벌 구매자 또는 글로벌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구매자 구동 가치사슬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UNCTAD 2010).

1. 국제 조달상품의 가치사슬(International Supply commodity chains)

2) Gereffi, G., J. Humphrey and T. Sturgeon(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 pp. 78-104; 전응길(2013), 「무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글로벌 가치사슬」, 『나라경제』, pp. 40-42. (May)

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국제적 거래가 독립기업간의 거래로 구성된다. 최소한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며 원자재 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생산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Producer-driven commodity chains)은 주로 대규모의 다국적 제조업체가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는 구조이며,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성격의 산업인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반도체 및 증기계 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3. 구매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Buyer-driven commodity chains)은 대규모 소매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브랜드 제조업자들이 수출주도 성장을 이루는 개발도상국들에 분산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4. 수직통합 가치사슬(Vertically Integrated chains)은 계층적 관리방식으로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수직적 통합을 통해 중요한 모든 재화와 제품들을 기업 내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찾기 힘든 방식이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자신들의 GVC를 조직하고 유지 관리하는 선도기업의 역할을 한다. 선도기업들은 가치사슬 내 다수의 공급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영역 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행동기준을 만든다. 처음에는 생산할 제품의 목록과 수량을 정한 다음 제품과 생산과정의 표준을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공급업체들의 능력과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제품의 주문량과 납품시기를 배분한다. 이러한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들은 제품의 질과 납품시일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납품업체들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중간재 투입을 점검한다. 즉 선도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GVC의 순조로운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APEC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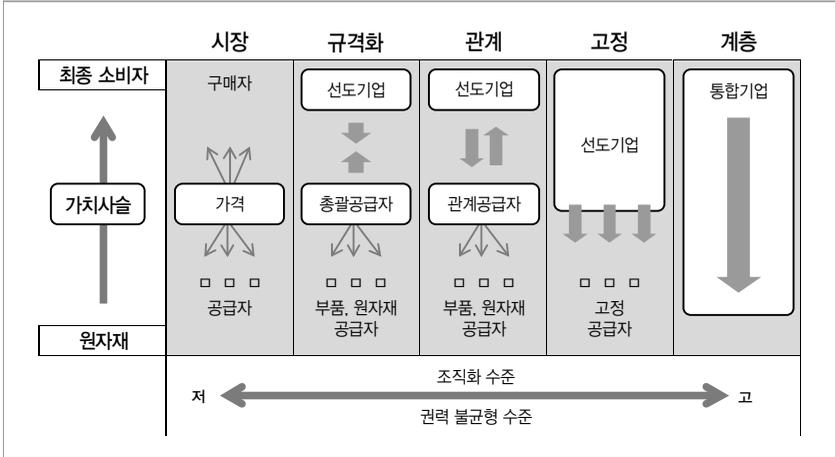
GVC에서 다국적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의 연계관계는 거래의 복잡성, 정보

의 체계화 가능성, 그리고 공급업체의 역량에 따라 다섯 가지의 지배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2-1 참고, Gereffi, Humphrey and Sturgeon 2005; APEC 2014).

1. 시장 지배구조(Market governance Structure): 공급자들은 원자재 기반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표준제품을 제공한다. 공급되는 제품이 대체되기 쉬운 표준화된 낮은 고객지향적, 그리고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래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에는 많은 생산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2. 규격화 지배구조(Modular governance structure): 선도기업과 총괄공급자(turn-key suppliers)는 기술혁신과 시장지배력에 상호 보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다. 이들은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총괄공급자는 제품과 생산의 표준을 설정하고 단순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관리한다. 제품 구조나 생산은 규격화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강력하고 규모가 큰 1차 공급업체들이 존재하는 자동차나 전자 산업에서의 통합된 가치사슬을 의미한다.
3. 관계 지배구조(Relational governance structure): 선도기업과 지역적 공급자들은 명성, 윤리적 가치, 신뢰수준 및 가족관계와 같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는 제품들의 성격이 체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욱 복잡해진다.
4. 고정 지배구조(Captive governance structure): 유사계층 지배구조로 선도기업이 생산에 패쇄적인 관리를 한다. 즉 선도기업이 특별한 제품 디자인과 제품요건을 규정하고 소규모 공급자들은 차별화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특화된 생산 기계나 설비에 투자한다. 이러한 공급자들은 거래선 변경비용(switching costs)에 직면한다.
5. 계층 지배구조(Hierarchy governance structure): 수직통합된 구조를 일컫는다. 이렇게 통합된 기업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역회사뿐만 아니

라 모든 생산과정과 자회사들을 통제한다. 본 구조에서 다국적기업은 선도기업이 아니라 GVC의 모든 기업들의 직접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통합된 기업이다.

그림 2-1.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지배구조



자료: Gereffi, Humphrey and Sturgeon(2005), p. 89.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선정기준

GVC에서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 기준을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s)와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2 참고). 외재적 강점은 제품속성(Product Attributes)와 기업속성(Company Attributes)으로 나뉘며, 제품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이고 그 다음은 가격과 배송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선도기업인 다국적 기업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배송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선택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기업속성은 다음 일곱 가지로 더욱 세분화하였다(그림 2-2,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9; APEC 2014).

첫째, 재무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은 중소기업의 계약 불이행이나 파산과 같은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공급업체들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기록을 주시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회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둘째,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은 중소기업 공급업체가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표준과 인증제(Standards and Certificates)는 중소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중소 공급업체가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증명서 또는 산업특성 표준의 보유는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넷째, 유연성(Flexibility)은 변화하는 요구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고객들에게 빠르게 대응하고, 수요의 변화와 제품 향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은 융통성(adaptability), 민첩성(agility), 그리고 확장성(scalability)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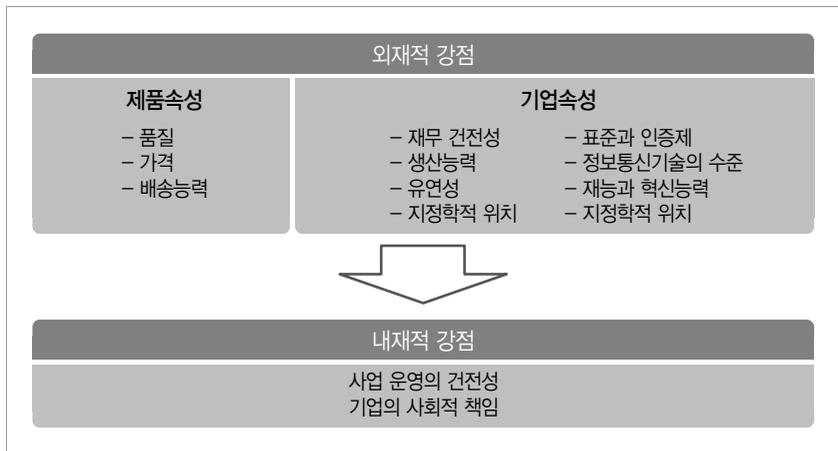
다섯째, 지정학적 위치(Geographic Location)는 정보통신기술과 운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소비자와 소비시장을 이해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중요 소비자들과의 근접성은 경쟁자들에 비해 비교우위로 작용한다.

여섯째, 정보통신기술의 수준(The ICT Level of Business Operation)은 기업 정보화를 일컫는다.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데이터 교환 또는 정보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호한다.

일곱째, 재능과 혁신능력(Talent and Innovation Capacity)은 공급업체의 기술, 혁신역량 및 관리능력은 중소 공급업체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국적기업들은 더욱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GVC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급업체를 선호한다.

그리고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의 첫 번째 요소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 운영의 건전성(Business Integrity)이다. 사업 운영의 건전성이란 기업이 법과 규정, 그리고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윤리적인 관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현시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소기업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적인 명성은 GVC의 전반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들이 공급업체로 중소기업을 결정할 때 기업의 규모(Firm Size)는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2-2. 다국적기업의 중소 공급업체 선정기준



자료: APEC(2014), p. 33.

4.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경쟁력 향상 전략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순한 혁신보다는 경쟁기업들에 비해 더욱 빠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중소기업 또는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혁신과정을 향상(upgrading)이라고 정의하였다. 공정(process), 제품(product), 기능(function), 사슬(chain) 향상이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Kaplinsky and Morris 2001). 또한 이러한 향상(upgrading)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구성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또는 기업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GVC 전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관점에서의 전략도 강조되고 있다(UNCTAD 2007).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소기업 관점에서 위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향상(upgrading)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³⁾

첫째, 공정 향상(process upgrading)은 기업 내부 생산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재고자산 회전율 증대 또는 폐기물 축소와 같은 기업의 독립적인 효율성 향상과 정시 배달 및 국제표준 공유와 같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간의 관계 효율성 향상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제품 향상(product upgrading)은 경쟁기업들에 비해 새로운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중핵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 향상(functional upgrading)은 기업 내부에 기능을 확대하여 부가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가치사슬 내에서 기존의 저부가가치를 생산하던 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 습득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사슬 또는 교차 향상(chain or Intersectional upgrading)은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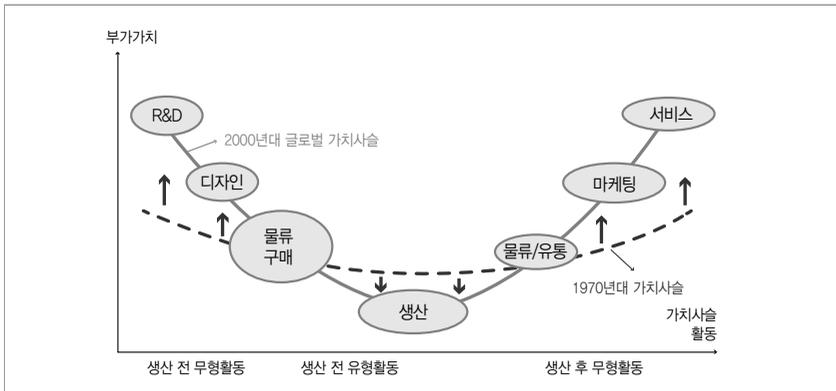
3) 이준호, 김종일(2007); OECD and World Bank Group(2015)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가치사슬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쟁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위 네 가지 형태의 향상(upgrading) 중에서 공정과 제품 향상은 기능과 사슬 또는 교차 향상에 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향상이란 단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하여 지속적인 향상(upgrading)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부가가치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모양이 변화하였다. [그림 2-3]은 부가가치의 정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모양을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였다. 일명 스마일 곡선이라고 불리는 이 곡선의 변화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가치사슬의 양쪽 끝쪽의 활동인 R&D와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웅길 2013). 특히 GVC에서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활동이 R&D 또는 유통과 같은 가치사슬의 양쪽 끝쪽의 활동보다 중심에 있는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향상(upgrading)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중요성을 한층 확고하게 하였다.

그림 2-3. 스마일 곡선



자료: 전웅길(2013), p. 42.

제3장 |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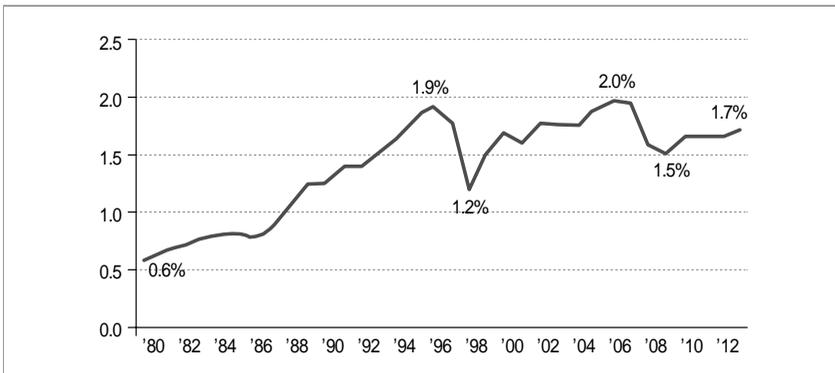
1.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및 규제완화와 같은 한국 정부의 글로벌화 정책과 해외 생산기지 및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확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3-1]과 같이 세계 GDP에서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0.6%로 시작하여 2006년 최고점인 2.0%를 달성한 후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 성장은 계속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또는 정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림 3-1. 세계 GDP에서 한국 GDP의 비중

(단위: %)



자료: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
(검색일: 2015. 8. 19).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대에 따라 무역통계의 중복계산(Double Counting)이란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GVC에 참여 정도 또는 참여단계에 따라 보다 정확한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GVC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의 가공무역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과 1980년대 이후 수입시장 자유화 정책에 따른 생산활동의 국제화로 급속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자료는 국가 상호간의 경제적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는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Project에서 제공된 세계산업연관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수출입이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총수출입량과 새롭게 계산된 부가가치 수출입량에 따라 비교하였다. 수출의 경우 1995년 총수출은 세계 총수출에 2.7%를 차지하였고 이 비중은 2008년까지 큰 변화 없이 2.7%에서 2.9%를 유지하였고, 2009년부터 3%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서 3.3%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에 2.3%를 제외하고는 1995년에서 2011년까지 2.4%에서 2.8%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의 차이는 2008년 0.3%를 시작으로 2011년에 0.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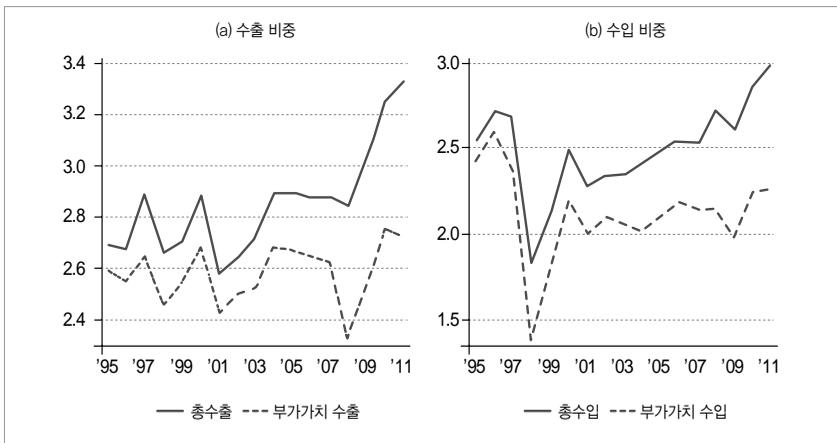
세계 수입에서 한국 수입 비중의 경우는 총수입 비중이 1995년도 2.6%로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인 1998년도의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라 1.8%까지 감소하였지만, 2001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2011년도에는 3.0%까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수입 비중 역시 총수입과 비슷한 패턴으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비중이 2.0%에서 2.3%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총수입과 부가가치 수입의 격차는 2003년도 0.4%에서부터 2011년도 0.7%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수출입과 부가가치 수출입 비중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GVC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 내에 해외에서 생산된 (해외의 국내기업과 해외의 해외기업에 의한) 중간재(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품에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중간재들이 해외에서 일부 부가가치를 높여 역수입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정성훈 2014).

그림 3-2.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정성훈(2014), p. 26.

2. 산업별 GDP 대비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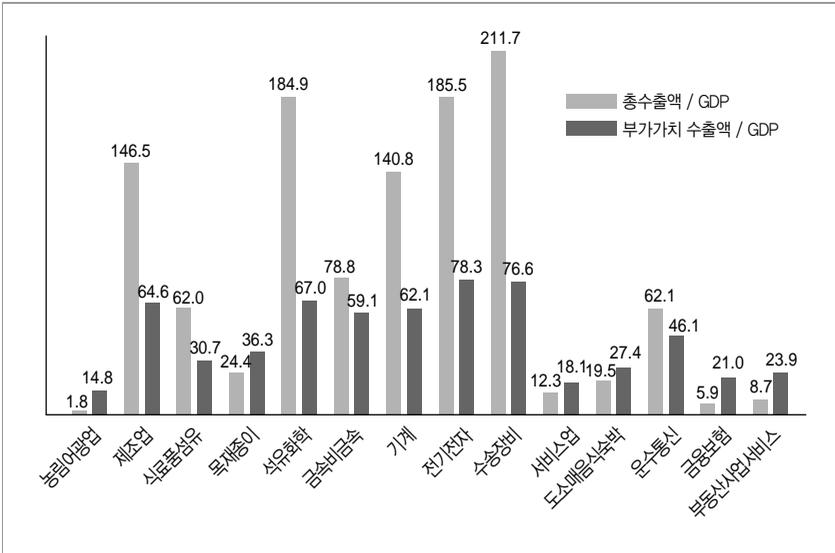
한국의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의 수출 비중은 비제조업 15%, 제조업 6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식음료, 섬유나 목재/종이와 같은

경공업은 각각 30.7, 36.3%, 전기전자는 78.3%, 수송장비는 76.6%이며, 이러한 비중은 한국의 규모가 큰 산업은 해외의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3). 즉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부가가치 수출과 경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하는 것이다(정성훈 2014).

산업별 수출액이 산업별 GDP보다 많은 이유는 다른 산업과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며, 기존의 수출통계로는 수출이 각 산업의 GDP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반면, 부가가치 수출액으로는 가능하다. 또한 국내 제조업 GVC 내 산업별 소득 비중에서 해외 비중의 증가는 우리 제조업이 국내 중간재를 해외 중간재로 점차 대체해 왔고 그 중에서도 해외 원자재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 비중을 빠르게 높여 왔으며, 제조업이 GDP에 기여하는 효과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산업별 GDP 대비 총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2011년 기준)

(단위: %)



자료: 정성훈(2014), p. 32.

3.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에서 한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TiVA Database를 사용하였고, UNCTAD의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산업구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 3-1]과 같이 제조업을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로 구분하였다.

표 3-1. 산업 구분표

	ISIC Rev,3
총제조업	C15T37: Total Manufactures
식품품, 음료, 담배	C15T16: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C17T19: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목재 및 나무 제품	C20: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펄프, 종이, 출판, 인쇄	C21T22: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C23: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화합물 및 화학제품	C24: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5: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비금속광물 제품	C26: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C27: Basic metals/C28: Fabricated metal products
기타 기계 및 장비	C29: Machinery and equipment, ne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C30T33X: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C31: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C34: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C35: Other transport equipment
기타 제조업	C36T37: Manufacturing nec; recycling

자료: OECD, http://www.oecd.org/sti/ind/TiVA_2015_Industry_List.pdf(검색일: 2016. 1. 15).

OECD의 TiVA Database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수출량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량은 [표 3-2]와 같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수출량 합으로 대체하였다. OECD가 제공하는 7년간의 세

계 총부가가치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에서 58%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1995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12%,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1%로 그 뒤를 이었다. 2011년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8%로 선두를 유지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이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2%를 차지했다.

또한 1995년과 2011년의 산업 비중의 변화를 볼 때,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품 산업의 비중이 97%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각각 13%와 11% 증가하였다. 산업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이 49%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음료, 담배 제품 산업이 32%,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제품 산업이 28%,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제품 산업이 23% 감소하였다.

표 3-2. 세계 부가가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산업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총부가가치 생산	1,843,193	2,419,554	4,095,274	6,721,481	5,431,818	6,625,051	7,835,594
총제조업	1,063,589	1,357,012	2,350,769	3,800,047	3,122,373	3,836,334	4,445,627
식료품, 음료, 담배	86,133	85,843	125,422	201,690	180,758	205,608	243,704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04,638	133,346	210,657	277,280	252,744	290,508	334,897
목재 및 나무 제품	16,158	17,006	27,459	34,390	27,142	30,989	34,512
펄프, 종이, 출판, 인쇄	29,889	36,517	52,744	78,212	68,770	81,622	90,49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9,458	73,852	150,769	279,509	199,633	267,269	324,553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7,610	123,137	217,364	366,210	304,231	389,500	465,83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7,739	34,928	66,109	96,913	85,454	107,181	128,364
비금속광물 제품	14,451	19,664	31,309	48,283	40,419	49,011	54,301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117,889	135,985	272,688	526,926	355,701	457,652	558,301

표 3-2. 계속

산업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기타 기계 및 장비	127,285	130,410	236,702	414,415	333,054	401,382	473,08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89,118	323,884	520,760	698,766	595,325	747,981	804,01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7,472	57,763	106,475	191,779	160,040	195,564	217,666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20,300	141,309	253,183	460,964	397,634	473,124	548,536
기타 제조업	35,449	43,368	79,130	124,708	121,471	138,941	167,364

주: 세계 TIVA: OECD Members+Non-OECD Members.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세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와 비교해볼 때,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수출에는 보다 많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표 3-3]에 의하면, 한국의 총부가가치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71%에서 2011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제품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각각 16%로 그 뒤를 이었다. 2011년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총제조업에서 25%를 차지하였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23%,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2%를 차지하는 변화를 보였다.

1995년에 비해 2011년에는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의 비중이 275% 증가하였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이 107%,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79%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과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의 비중은 모두 83% 정도 감소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이 64%,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이 41%, 그리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의 비중이 37% 감소하였다. 총제조업에서 역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

비 산업도 1995년에는 30%에서 2011년에 25%로 19% 정도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한국 부가가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산업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총부가가치 수출	150,706	205,076	330,857	491,920	413,368	528,689	622,265
총제조업	106,867	149,938	255,050	375,744	320,974	416,289	495,395
식품품, 음료, 담배	2,298	2,429	3,024	3,973	4,122	4,863	6,260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6,892	14,752	10,026	10,274	9,659	11,383	13,234
목재 및 나무 제품	122	92	61	58	56	73	94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294	1,869	2,800	3,593	2,804	3,258	3,77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136	9,765	16,664	38,350	23,285	34,916	54,5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6,287	7,587	24,564	37,267	32,780	40,729	52,26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6,539	8,116	5,762	7,137	6,708	8,925	10,957
비금속광물 제품	594	789	1,192	1,292	1,064	1,551	1,777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10,381	10,669	22,429	40,927	34,963	43,835	58,458
기타 기계 및 장비	6,028	7,966	19,368	31,434	26,494	34,718	42,5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2,518	56,134	87,308	103,306	94,732	125,153	122,46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678	2,107	6,013	11,821	11,905	13,422	16,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6,783	25,395	53,774	84,054	70,072	92,492	111,723
기타 제조업	2,317	2,271	2,065	2,258	2,328	971	1,222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표 3-4]는 OECD의 부가가치 수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체 제조업과 각 산업의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⁴⁾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1995년에 1.23에서 2011년에는 1.40으로 14% 정도 상승된 것으로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은 특정 경제주체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낼 수.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존재한다.

나타났다.

1995년에는 14개의 산업 중에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이 2.35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았던 산업이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7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61,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39로 비교우위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83으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1.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37,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1.01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변화를 분석해볼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단 2개의 산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1.39에서 1.83으로 현시비교우위지표가 32% 상승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1.71에서 1.37로 20% 감소하였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1995년 지표가 각각 0.79와 0.58로 경쟁력이 없던 산업이었는데, 2011년에는 1.51과 1.01로 각각 91%와 73% 상승하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1995년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과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각각 2.35와 1.61로 당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산업 중에 2개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은 지수가 67% 감소하여 0.77로, 그리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또한 78% 감소하여 0.35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변화되었다.

$$RCA_i = \frac{X_j^i / X_w^i}{X_j^j / X_w^j}, \text{ 여기서 } i = \text{산업}, j = \text{특정 국가(한국)}, w = \text{전 세계}, X = \text{TiVA}$$

표 3-4.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총제조업	1.23	1.30	1.34	1.35	1.35	1.36	1.40
식품품, 음료, 담배	0.27	0.26	0.22	0.20	0.22	0.22	0.23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61	1.00	0.44	0.37	0.37	0.36	0.35
목재 및 나무 제품	0.07	0.05	0.02	0.02	0.02	0.02	0.02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43	0.46	0.49	0.46	0.40	0.37	0.3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79	1.20	1.02	1.39	1.13	1.20	1.51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8	0.56	1.04	1.03	1.05	0.96	1.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35	2.10	0.80	0.74	0.76	0.77	0.77
비금속광물 제품	0.41	0.36	0.35	0.27	0.26	0.29	0.29
제1차금 속산업/금속가공제품	0.88	0.71	0.76	0.79	0.96	0.88	0.94
기타 기계 및 장비	0.47	0.55	0.75	0.77	0.77	0.80	0.8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71	1.57	1.55	1.50	1.55	1.54	1.3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35	0.33	0.52	0.62	0.72	0.63	0.66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39	1.63	1.96	1.84	1.71	1.80	1.83
기타 제조업	0.65	0.47	0.24	0.18	0.19	0.06	0.07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4. 글로벌 가치사슬 vs.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활동은 외국인직접투자(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도와외의 긍정적인 통계적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GVC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 시키고, 궁극적으로 GVC 참여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UNCTAD 2013).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비중과 패턴으로 한국 경제가 GVC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그 패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4]의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stocks) 데이터에 의하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의 비중이 1980년 0.16%에서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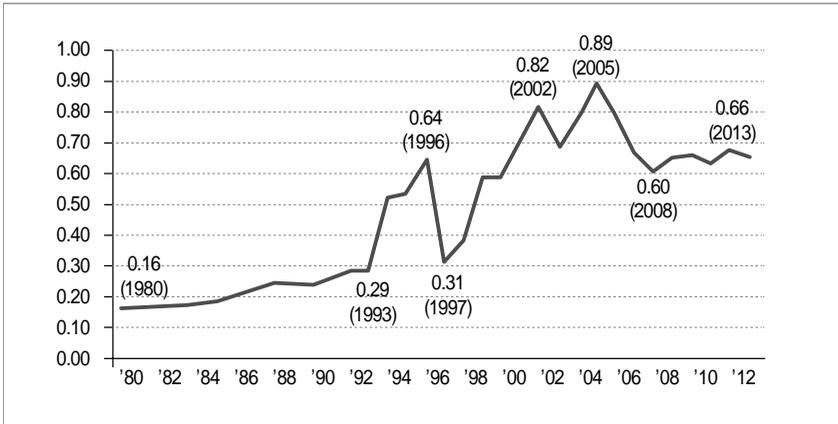
0.89%까지 상승한 후 0.66%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는 [그림 3-1]에서 보여준 세계 GDP에서 한국 GDP가 차지하는 1.7%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즉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유치 비중이 절반 이하의 수준에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는 외향적인 글로벌화와는 상대적인 개념인 내향적인 글로벌화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GVC 확대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단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서, 기술개발 및 기타 고부가가치 활동의 해외이전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보다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란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인한 해외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생산활동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익증대와 새로운 산업 진출 및 GVC 편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의 습득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내향적인 글로벌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중소기업들에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 기술, 경영인력, 경험, 그리고 정부지원의 부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 또는 비용과 관련된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기술혁신 및 고객중심적인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김종일, 이성아 2008).

그림 3-4.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세계 IFDI에서 한국 IFDI의 비중)

(단위: Stocks, %)



자료: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검색일: 2015. 5. 7).

5.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한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NCTAD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OECD의 TiVA Database 자료와 산업구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 3-1]과 같이 제조업을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로 구분하였다.

[표 3-5]는 세계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Stocks)으로 2002년에 2조 69억 2,500만 달러에서 2012년 4조 4,837억 100만 달러로 약 10년간 123% 증가하였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2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6%, 그리고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이 11%,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에도 산업별 비중에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17%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식료품, 음

료, 담배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각각 12%, 11%, 그리고 10%를 차지하였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해볼 때,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은 2001년 4%를 차지하다가 2012년 11%를 차지하여 161%로 가장 많은 성장을 보였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와 비금속광물 제품산업도 2002년에는 각각 1.2% 0.8%였던 비중이 2012년도에는 2.4%와 1.6%로 각각 97%와 94% 상승하였다. 반면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과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은 2002년 각각 4.9%와 3.5%의 비중이 2012년에는 1.0%과 1.2%로 각각 80%와 66%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5. 세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제조업	2,006,925	2,221,174	2,671,271	2,774,283	3,366,966	4,217,443	4,155,748	4,554,517	4,347,436	4,405,584	4,483,701
식품품, 음료, 담배	225,228	235,304	250,641	301,442	348,491	461,851	487,326	579,948	491,441	515,473	547,547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98,563	111,315	152,588	135,458	53,149	86,144	101,360	118,246	74,740	71,932	44,903
목재 및 나무 제품	70,413	55,265	58,144	83,823	89,477	102,572	94,094	95,900	77,330	77,000	53,743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1,086	11,800	14,032	15,664	25,790	101,831	93,396	121,697	128,235	73,487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4,760	28,349	27,953	35,738	36,035	40,375	31,153	36,771	54,198	51,827	109,089
화학물 및 화학제품	419,736	441,373	667,930	564,458	813,592	918,480	896,387	967,545	871,907	924,202	758,05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3,004	28,135	28,297	35,909	50,788	57,784	56,229	65,531	63,270	66,659	64,067
비금속광물 제품	16,769	20,701	25,075	36,164	42,380	57,165	57,928	67,822	63,368	62,230	72,658

표 3-5.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208,050	222,512	225,266	268,090	231,677	395,618	378,456	360,211	463,521	450,572	462,688
기타 기계 및 장비	82,780	82,085	96,215	109,450	144,077	183,555	203,168	238,775	216,256	225,638	482,1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96,375	185,002	227,127	249,641	315,326	365,752	348,543	377,168	364,144	383,370	241,23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1,859	31,445	41,683	51,019	55,587	78,377	64,562	76,064	86,097	89,163	-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317,706	353,468	385,353	428,717	511,871	628,823	486,395	475,886	454,073	456,762	497,412
기타 제조업	290,596	414,420	470,967	458,710	648,726	739,116	856,751	972,953	938,856	957,271	1,150,203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5. 11. 10).

[표 3-6]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Stocks)⁵⁾으로 2002년에 227억 2,200만 달러에서 2012년 826억 3,700만 달러로 264% 증가하였다. 산업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20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각각 13%, 13%, 그리고 11%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9%,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산업은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으로 상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2002년 1,300만 달러에서 2012년에 6억 6,300만 달러로 5,000% 증가하였고, 전체 제조업 해외직접

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Flows)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는 부록 2 참고.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0.06%에서 2012년 0.80%로 1,302%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절대량으로 볼 때,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도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500% 이상 증가하였다.

산업이 전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2001년에 비해 2012년에 각각 98%, 68%, 66% 증가하였다. 반면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의 비중은 2002년 1.34%에서 2012년 0.68%로 50% 감소를 보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도 각각 31%, 30%, 27% 감소하였다.

2002~12년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Stocks)의 절대량과 비중의 변화를 종합해 분석하면, 해외직접투자의 중심산업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6.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제조업	22,722	25,048	28,631	32,435	38,046	46,183	52,904	57,394	64,542	74,221	82,637
식품품, 음료, 담배	834	899	1,055	1,267	1,557	2,217	2,775	3,043	3,373	3,803	4,122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3,067	3,359	3,761	4,261	4,720	5,223	5,691	5,977	6,427	7,209	7,676
목재 및 나무 제품	160	167	180	190	206	227	240	255	350	430	44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305	323	368	384	405	439	462	479	521	545	56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3	14	54	74	152	189	221	284	458	548	663

표 3-6.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15	1,488	1,687	1,898	2,390	3,094	3,487	3,756	5,416	5,980	6,34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93	519	630	728	934	1,186	1,415	1,543	1,637	2,037	2,396
비금속광물 제품	799	888	985	1,107	1,259	1,357	1,500	1,702	1,818	1,938	2,040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3,036	3,641	4,003	4,491	4,929	5,740	6,556	7,032	7,608	9,781	11,022
기타 기계 및 장비	487	589	805	934	1,108	1,452	1,927	2,273	2,726	3,147	3,5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7,963	8,390	9,666	10,594	12,004	13,999	14,954	15,730	17,479	19,443	21,18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63	715	808	921	1,250	1,571	2,005	2,318	2,534	2,826	3,171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2,606	2,869	3,280	4,074	5,376	7,367	9,268	10,397	11,333	13,069	15,752
기타 제조업	1,080	1,188	1,349	1,512	1,755	2,121	2,403	2,604	2,861	3,464	3,7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표 3-7]은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⁶⁾를 분석하였다.

2002년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14개의 산업 중에서 비금속광물 산업이 4.21로 가장 높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58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에서 비

6)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 경제 주체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낼 수.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존재한다.

$$RCA_i = \frac{X_j^i / X_w^i}{X_j / X_w}, \text{ 여기서 } i = \text{산업}, j = \text{특정 국가(한국)}, w = \text{전 세계}, X = \text{해외직접투자(Stocks)}$$

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또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가장 비교우위가 낮은 현시비교우위지수 0.05를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5.95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01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11년 동안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 나타났다.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은 2002년 현시비교우위지수 2.43으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이었지만, 2011년 지수가 0.44로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되었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2년 현시비교우위지수 0.72에서 2011년 1.70으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Stocks)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음료, 담배	0.33	0.34	0.39	0.36	0.40	0.44	0.45	0.42	0.46	0.44	0.4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2.75	2.68	2.30	2.69	7.86	5.54	4.41	4.01	5.79	5.95	9.28
목재 및 나무 제품	0.20	0.27	0.29	0.19	0.20	0.20	0.20	0.21	0.31	0.33	0.4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2.43	2.43	2.45	2.10	1.39	0.39	0.39	0.31	0.27	0.44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5	0.04	0.18	0.18	0.37	0.43	0.56	0.61	0.57	0.63	0.33

표 3-7.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화학물 및 화학제품	0.28	0.30	0.24	0.29	0.26	0.31	0.31	0.31	0.42	0.38	0.4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1	1.64	2.08	1.73	1.63	1.87	1.98	1.87	1.74	1.81	2.03
비금속광물 제품	4.21	3.80	3.66	2.62	2.63	2.17	2.03	1.99	1.93	1.85	1.52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1.29	1.45	1.66	1.43	1.88	1.33	1.36	1.55	1.11	1.29	1.29
기타 기계 및 장비	0.52	0.64	0.78	0.73	0.68	0.72	0.75	0.76	0.85	0.83	0.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58	4.02	3.97	3.63	3.37	3.50	3.37	3.31	3.23	3.01	4.7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2.68	2.02	1.81	1.54	1.99	1.83	2.44	2.42	1.98	1.88	-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0.72	0.72	0.79	0.81	0.93	1.07	1.50	1.73	1.68	1.70	1.72
기타 제조업	0.33	0.25	0.27	0.28	0.24	0.26	0.22	0.21	0.21	0.21	0.18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5. 11.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제4장 |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유형을 일곱 가지(7)로 세분화하였다(이준호, 최정일, 이옥동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경쟁력을 생산지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생산 두 가지 유형으로 대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즉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GVC 참여를 나타낸다. 세계산업연관표(WIOD: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없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산출하기 위해 OECD의 세계 총부가가치 수출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들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해외에서의 생산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며, 해외 생산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총해외직접

7) 1. 해외 소재 글로벌 대기업으로 편입, 2.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으로 편입, 3. 국내 대기업으로 편입, 4.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GVC 편입, 5.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6. 대기업의 중소기업 GVC 편입 지원 프로그램 활용, 7. 중개 및 대행기구 등을 통한 GVC 편입(이준호 2007; 고희재 201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 세계 OFDI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였다.

1.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현황

[표 4-1]과 [그림 4-1]에 의하면, 1980년 한국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량은 11조 8,000억 원이며, 중소기업이 35.2%인 4조 1,000억 원과 대기업이 7조 6,000억 원을 차지하였다. 총부가가치 생산량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3년 50.3%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후 하락과 상승세를 유지하며 2003년에는 역대 최고의 52.8%인 134조 2,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 비율이 대기업대비 감소하였고, 2013년 미약한 반등과 함께 49.5%인 248조 1,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표 4-1. 한국 중소기업/대기업 제조업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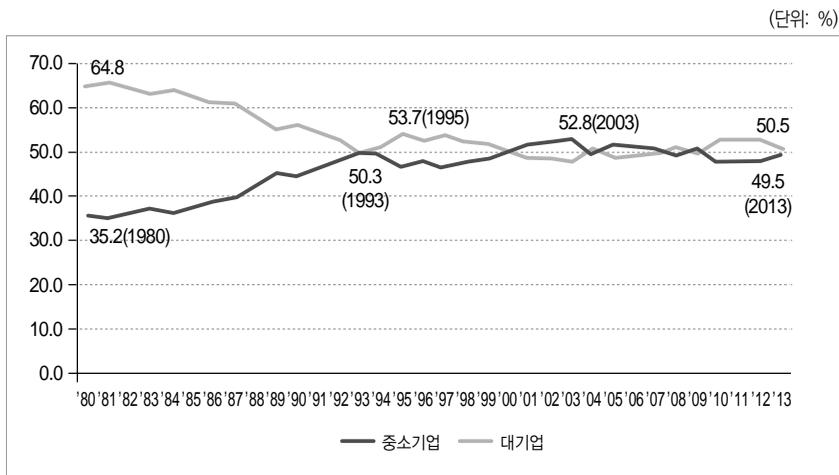
	1980	1980 ~89	1990	1990 ~99	2000	2000 ~09	2010	2013
전체	118,566	293,629	709,245	1,383,855	2,194,246	2,991,403	4,547,758	5,013,491
중소기업	41,683	116,640	314,318	657,210	1,101,508	1,518,323	2,157,359	2,481,834
대기업	76,883	176,989	394,927	726,645	1,092,738	1,473,080	2,390,399	2,531,657
중소기업 (%)	35.2	38.3	44.3	47.3	50.2	50.9	47.4	49.5
대기업 (%)	64.8	61.7	55.7	52.7	49.8	49.1	52.6	50.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0. 31).

[그림 4-1]에 의하면,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35.2%에서 49.5%로 14.3%p 증가하였고, 국내 대기업

들의 비중은 반대로 64.8%에서 50.5%로 14.3%p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와 대기업의 비중 축소 현상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급격하게 발생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글로벌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발생된 변화로 예측된다.

그림 4-1.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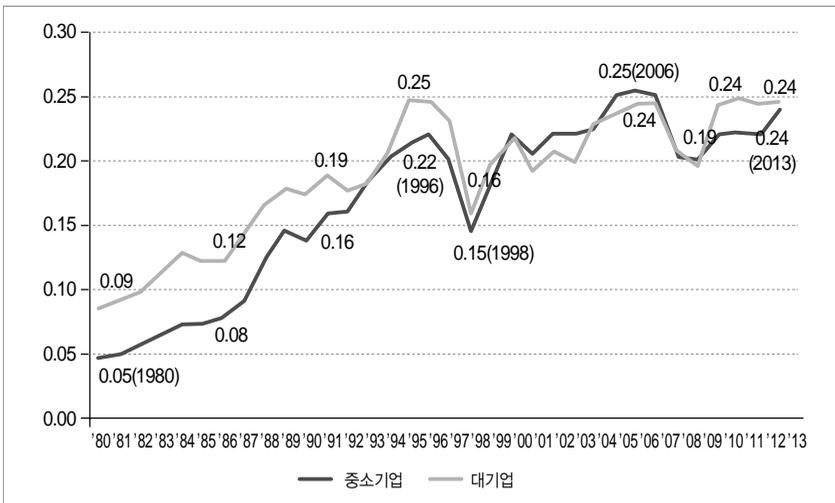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0. 31).

2.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의 세계 GDP 공헌도

[그림 4-2]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량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중소 제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1980년 전 세계 GDP에 0.05%를 차지하였고,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96년

0.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그 비중이 0.15%까지 급감한 후에 지속적인 회복세로 2006년 역대 최고의 0.25%를 기록하였다. 그 후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13년 0.24%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0년 0.05%대비 380%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980년부터 전체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전 세계 GDP에 공헌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즉 한국 중소기업체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였으나, 전 세계 GDP에 대한 공헌도는 1980년 0.09%에서 2013년 0.24%로 167%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 역시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2.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내 부가가치가 세계 GDP 공헌 비율⁸⁾
(제조업 부문)



자료: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5. 8. 19);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0. 31).

8) 중소기업 공헌 비율=(한국 GDP/세계 GDP)×(중소기업 부가가치 생산량/한국 총부가가치 생산량).

3.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자료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OECD가 제공하는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는 대/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부가가치 수출량을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표 4-2]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을 산업별로 정리하였다. 총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2002년 240조 8,310억 원에서 2013년 501조 3,491억 원으로 108% 증가하였다. 산업별 비중을 볼 때 20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1%인 49조 4,1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5%로 36조 897억 원,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1%로 25조 5,802억 원을 차지하였다. 2013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5%인 126조 4,94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5%,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2%로 200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2002년대비 2013년의 변화량으로 볼 때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2002년 2% 수준으로 4조 7,705억 원에서 2013년 총제조업의 4%를 차지하는 19조 8,713억 원으로 가장 높은 317%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도 2002년 4%로 8조 5,173억 원에서 2013년 6%의 29조 4,750억 원으로 246% 증가하였다.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은 2002년에 비해 2013년에 절대 생산량이 감소한 유일한 산업으로, 2002년에 12조 625억 원에서 2013년 10조 2,155억 원으로 15% 감소하였다.

[표 4-3]은 한국 중소기업들 국내 부가가치의 산업별 생산량으로 그 변화가

[표 4-2]의 한국 기업 전체와 비교하여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한국 중소기업들의 총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량은 124조 5,762억 원에서 2013년 248조 1,834억 원으로 99%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총제조업에서 12.4%인 15조 4,51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1.7%인 14조 5,807억 원,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1.5%인 14조 3,110억 원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비중은 2013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한 산업은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으로 15.5%인 38조 4,223억 원을 생산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12.2%인 30조 3,491억 원,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0.5%인 26조 122억 원을 생산하였다.

표 4-2. 한국 산업별 총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단위: 억 원)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제조업	2,408,310	2,544,090	3,000,732	3,109,571	3,249,104	3,451,216	3,657,596	3,726,675	4,333,786	4,780,077	5,021,589	5,013,491
식품, 음료, 담배	179,210	182,696	206,473	192,254	191,780	209,890	207,929	220,888	227,937	238,489	274,923	286,632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70,447	168,067	165,758	165,108	161,033	160,924	147,443	156,420	168,558	181,378	195,072	196,590
목재 및 나무 제품	13,224	13,174	15,290	15,006	15,541	17,401	14,266	14,706	14,076	14,827	19,754	19,393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20,625	120,775	120,176	123,078	124,670	80,572	75,191	77,078	81,149	82,461	101,567	102,15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47,705	52,991	71,025	110,602	116,890	132,998	169,685	132,971	140,370	191,733	221,678	198,7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241,094	245,930	270,166	270,197	257,919	225,473	247,853	257,060	302,747	422,032	442,642	443,50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08,350	114,258	128,014	147,911	151,902	160,514	157,503	149,744	170,708	188,992	222,200	233,838
비금속광물 제품	97,057	102,836	109,448	106,695	106,583	111,526	119,555	137,575	148,602	143,400	149,627	154,019

표 4-2.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1차 금속 산업/금속가 공제품	255,802	283,683	391,494	412,585	422,066	464,364	537,246	466,316	558,003	619,139	640,382	608,549
기타 기계 및 장비	192,901	216,226	256,734	271,978	283,009	286,392	289,674	271,959	335,581	359,001	396,078	391,0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94,176	531,818	705,301	709,887	742,278	771,993	812,436	947,787	1,147,844	1,221,503	1,247,132	1,264,94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85,173	91,326	103,887	104,057	113,935	202,941	220,143	236,272	263,558	270,748	297,995	294,750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360,897	378,768	408,298	430,881	499,827	577,678	618,374	613,723	729,001	796,148	754,549	760,449
기타 제조업	41,648	41,542	48,667	49,332	51,681	48,550	40,298	44,176	45,652	50,226	57,990	58,93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2002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2002년에 부가가치 생산량이 0.5%인 6조 2,990억 원에서 2013년엔 0.8%인 20조 1,723억 원으로 220%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도 26조 122억 원, 그리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도 1조 1,701억 원으로 2012년에 2002년도대비 각각 204%와 198% 증가하였다.

표 4-3.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단위: 억 원)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제조업	1,245,762	1,342,563	1,482,899	1,599,924	1,659,417	1,746,966	1,704,029	1,782,036	1,951,097	2,138,394	2,392,607	2,481,834
식료품, 음료, 담배	129,392	134,450	141,186	145,997	144,905	158,321	155,283	173,763	179,313	185,698	215,351	233,173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45,807	144,999	141,436	139,538	134,897	135,568	114,313	122,531	128,457	144,084	170,147	173,406
목재 및 나무 제품	11,257	11,489	13,916	14,099	14,389	15,565	12,102	12,781	13,004	14,275	18,932	18,64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81,912	85,473	84,487	87,885	89,546	67,552	57,109	64,347	71,457	71,861	87,094	88,67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928	3,895	4,159	5,140	5,389	4,066	4,919	7,143	10,487	12,557	11,656	11,701
화학물 및 화학제품	154,517	165,514	176,119	189,915	180,237	153,933	167,561	174,318	191,377	192,614	204,891	216,372

표 4-3. 계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77,170	83,847	96,085	106,675	110,581	116,187	108,535	114,194	130,218	134,898	163,511	173,316
비금속광물 제품	65,855	75,032	76,858	76,648	77,872	81,345	81,329	82,410	85,474	83,458	101,539	113,526
제1차 금속산업/금속 가공제품	143,110	163,474	212,718	248,969	262,770	284,317	290,202	280,637	311,837	352,628	380,396	384,223
기타 기계 및 장비	134,860	152,397	176,873	190,759	207,963	209,806	205,814	202,504	239,271	262,184	301,469	303,491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13,461	123,584	140,423	152,297	157,165	167,020	164,916	194,267	186,684	227,106	233,976	249,72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62,990	66,760	71,989	79,049	85,157	144,942	140,198	153,472	166,262	181,376	194,718	201,723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 타 운송장비	85,565	93,489	103,732	115,905	141,911	163,023	165,811	163,118	198,267	233,598	256,344	260,122
기타 제조업	35,937	38,159	42,917	47,047	46,634	45,312	35,937	36,551	38,989	42,057	52,584	53,730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표 4-4]는 세계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수출액을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즉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도출하는 과정은 첫째, OECD의 부가가치 수출과 중소기업청 자료의 산업분류를 ISIC Rev.3에 일치시켜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 산업과 5개년도(2005, 2008~11)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 자료에 기반으로 산업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계산하여,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액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OECD의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과 대·중소기업으로 구분된 OECD 한국 부가가치 수출액을 사용하여 현 시비교우위지수⁹⁾를 계산하였다.

2005년 한국 중소기업의 14개 산업 중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지수 1.42로 국내 생산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9)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 경제주체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낸 수.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존재한다. 한국 대·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은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을 중소기업청의 한국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산업별 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RCA_i = \frac{X_j^i / X_w^i}{X_j / X_w}$$

여기서 i = 산업, j = 특정 국가그룹(한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w = 전 세계, X = 부가가치 수출

표 4-4. 한국 중소기업의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품, 음료, 담배	0.33	0.32	0.36	0.38	0.40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72	0.62	0.61	0.61	0.63
목재 및 나무 제품	0.04	0.03	0.04	0.04	0.0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68	0.76	0.69	0.72	0.7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	0.09	0.13	0.20	0.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2	1.49	1.49	1.35	1.0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3	1.10	1.22	1.30	1.22
비금속광물 제품	0.49	0.40	0.32	0.37	0.38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0.89	0.91	1.20	1.10	1.20
기타 기계 및 장비	1.03	1.17	1.20	1.26	1.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0.93	1.38	1.39	1.35	1.6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77	0.85	0.98	0.89	1.00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02	1.06	0.95	1.09	1.20
기타 제조업	0.45	0.35	0.32	0.12	0.12

주: 현시비교우위=(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세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한국 중소기업 총 부가가치 생산/세계 총부가가치 생산),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OECD 한국 부가가치×(중소기업 부가가치/총부가가치).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1.61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한국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국내 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산출 비교된 총 5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지켜왔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08년부터 비

교우위가 발생하고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은 2008년까지 비교우위가 없다가 2009년부터 비교우위산업으로 대두되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구분되었다.

그 외의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에서 연구기간 동안 한국 중소기업들이 현시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에 의하면 한국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생산은 2002년 116조 2,548억 원에서 2013년 253조 1,657억 원으로 118% 증가하였다. 20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2.7%로 38조 715억 원,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23.7%인 27조 5,332억 원으로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에도 이 두 산업의 주도적인 비중은 계속 이어졌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40.1%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101조 5,218억 원으로 167% 증가하였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19.8%로 그 비중은 17%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50조 327억 원으로 82% 증가하였다.

[표 4-6]은 세계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대기업의 산업별 수출액을 계산하여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즉 국내생산 경쟁력을 도출하였으며, 그 과정은 [표 4-4]와 동일하다.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에 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산출된 5개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만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4-5. 한국 대기업의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생산(2002~13년)

(단위: 억 원)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제조업	1,162,548	1,201,527	1,517,833	1,509,648	1,589,686	1,704,261	1,953,567	1,944,638	2,390,487	2,641,683	2,628,982	2,531,657
식품, 음료, 담배	49,818	48,246	65,286	46,257	46,874	51,570	52,646	47,124	47,767	54,557	59,572	53,459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24,640	23,068	24,322	25,569	26,135	25,356	33,129	33,891	40,100	37,295	24,925	23,184
목재 및 나무 제품	1,968	1,686	1,374	907	1,151	1,836	2,163	1,925	1,071	553	822	744
펄프, 종이, 출판, 인쇄	38,712	35,302	35,688	35,193	35,124	13,058	18,083	12,731	9,692	10,600	14,473	13,47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43,776	49,096	66,867	105,462	111,501	128,932	164,767	125,828	129,882	179,176	210,022	187,012
화합물 및 화학제품	86,577	80,416	94,047	80,282	77,682	71,540	80,291	82,741	111,370	229,418	237,751	227,13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1,179	30,411	31,929	41,236	41,321	44,326	48,968	35,550	45,692	54,094	58,689	60,522
비금속광물 제품	31,202	27,804	32,589	30,047	28,711	30,181	38,226	55,165	63,129	59,943	48,087	40,493
제1차 금속 산업/금속가 공제품	112,692	120,210	178,776	163,616	159,286	180,047	247,044	185,680	246,165	266,511	259,987	224,326
기타 기계 및 장비	58,042	63,829	79,861	81,218	85,046	76,586	83,860	69,455	96,310	96,817	94,610	87,5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80,715	408,234	564,878	557,590	585,113	604,973	647,520	753,519	961,247	994,397	1,013,156	1,015,21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2,184	24,566	31,899	25,008	28,779	57,999	79,945	82,798	97,297	89,372	103,278	93,02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 타 운송장비	275,332	285,278	304,566	314,977	357,916	414,655	452,564	450,605	534,098	562,550	498,205	500,327
기타 제조업	5,711	3,382	5,751	2,286	5,047	3,201	4,361	7,626	6,667	6,400	5,406	5,20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표 4-6. 한국 대기업의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 음료, 담배	0.11	0.09	0.09	0.08	0.09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14	0.16	0.15	0.16	0.13
목재 및 나무 제품	0.00	0.00	0.01	0.00	0.00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29	0.21	0.13	0.08	0.0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0	2.52	2.06	2.03	2.55
화합물 및 화학제품	0.64	0.62	0.65	0.64	0.9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0.46	0.43	0.35	0.33	0.40
비금속광물제품	0.20	0.16	0.20	0.23	0.22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0.62	0.68	0.73	0.71	0.73
기타 기계 및 장비	0.46	0.42	0.38	0.42	0.39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2.19	1.60	1.69	1.70	1.1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26	0.42	0.49	0.42	0.40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2.95	2.53	2.41	2.39	2.34
기타 제조업	0.02	0.04	0.06	0.02	0.02

주: 현시비교우위=(한국 대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세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한국 대기업 총부가가치 생산/세계 총부가가치 생산), 한국 대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OECD 한국 부가가치 수출×(대기업 부가가치/총부가가치).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4.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7]과 [그림 4-3]은 한국 전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한국 대·중소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와 비중을 나타낸다. 1980년도 한국 기업들은 1억 4,520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였고, 중소기업이 30%인 4,360만 달러, 그리고 대기업이 62.6%인 9,0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총 2,541억 5,01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18.0%인 457억 2,880만 달러, 그리고 대기업은 79.5%를 차지하며 2,021억 5,9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한국 총해외직접투자의 22.9%를 차지하는 3,320만 달러에서 1996년 그 비중이 역대 최고인 53.7%까지 증가했고, 2013년에 36.1%를 차지하며 918억 7,3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1980년 26.4%인 880만 달러로 시작하였다. 그 비중은 1996년까지 점차 상승하여 53.7%인 28억 2,150만 달러까지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 22.3%인 204억 5,0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부가가치 생산 비중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표 4-1, 그림 4-1 참고). 2013년도 제조업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비중에 약 30%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생산 또는 경영 경쟁력이 대기업들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7. 한국 총해외직접투자 및 제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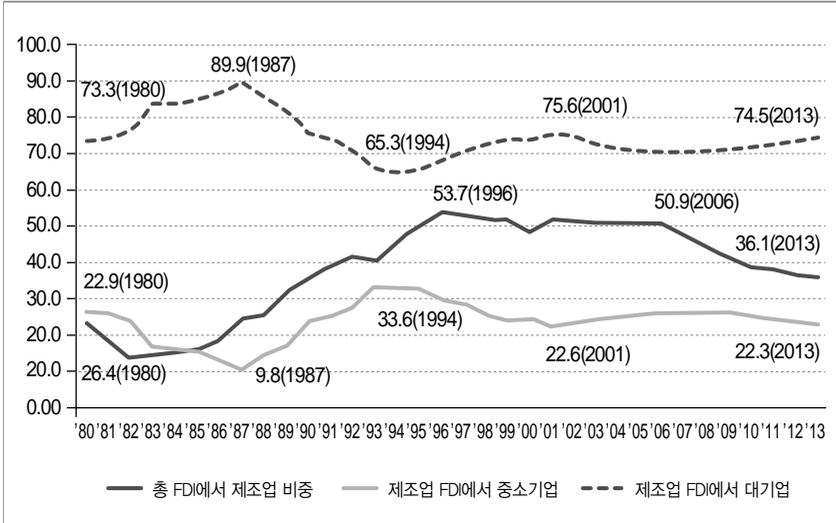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총 해외직접투자	총	145.2	3,247.4	34,908.5	166,877.1	195,879.8	224,306.4	254,150.1
	중소기업	43.6	426.0	8,435.9	37,594.6	40,590.0	43,187.3	45,728.8
	대기업	90.9	2,810.7	26,446.0	127,715.9	152,744.8	177,495.4	202,159.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총	33.2	1,161.6	16,951.5	64,542.4	74,221.5	82,637.3	91,873.2
	중소기업	8.8	271.8	4,147.8	16,261.0	17,807.0	19,046.5	20,450.2
	대기업	24.4	879.3	12,496.9	46,019.6	53,909.0	60,819.0	68,468.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	총*	22.9	35.8	48.6	38.7	37.9	36.8	36.1
	중소기업**	26.4	23.4	24.5	25.2	24.0	23.0	22.3
	대기업***	73.3	75.7	73.7	71.3	72.6	73.6	74.5

주: * 총 FDI에서 제조업 비중, ** 제조업 FDI에서 중소기업, *** 제조업 FDI에서 대기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0. 2).

그림 4-3.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Stocks)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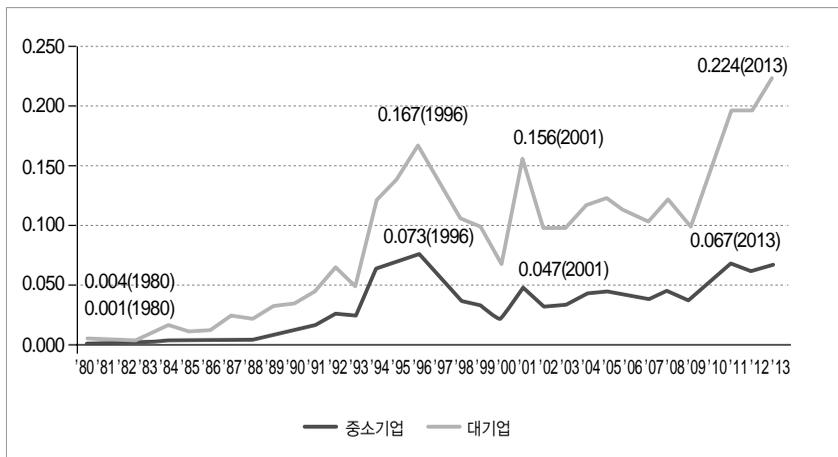
5. 한국 중소기업의 총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OFDI 공헌도

[그림 4-4]는 한국 중소 제조업과 대기업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총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0.004%로 시작되어 1996년 0.167% 까지 급증하였다가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다. 그 이후 대기업들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2013년 0.224%를 기록하였고, 이 비중은 [그림 4-2]에서 보여준 한국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세계 총 GDP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4-2]의 중소기업 부가

가치 생산량의 세계 GDP 공헌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1980년에 부가가치 생산량의 세계 GDP 공헌 비율은 0.05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 기업들이 세계 OFDI에 차지하는 비율은 0.001%이며, 이는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여 2013년에는 세계 해외직접투자에 0.067%를 차지하였다. 2013년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대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면에서는 대기업들의 30% 수준에 미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상대적 열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세계 OFDI(Stocks)에 대한 공헌 비율¹⁰⁾



자료: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검색일: 2015. 5.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0. 2).

10) 중소기업 공헌 비율=(한국 FDI/세계 FDI)×(중소기업 FDI/한국 FDI).

6.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 우위

[표 4-8]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으로 2002년에 섬유 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 17억 6,947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33%를 차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10억 1,992만 달러를 투자해 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투자액이 40억 3,285만 달러로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21.2%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9.2%를 차지하는 36억 5,115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해볼 때, 절대적인 투자액은 작지만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2년에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0.1%를 차지하는 753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0.6%인 1억 2,234만 달러로 1,524.7%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의 투자액도 2002년 대비 2012년에 600% 이상 증가하였다.

[표 4-9]는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¹¹⁾를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와 수출입은행의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OFDI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에 따른 경쟁력을 산업별로 측정하였다.

1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 경제주체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낼 수.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존재한다.

$$RCA_i = \frac{X_j^i / X_w^i}{X_j / X_w}$$

여기서 i = 산업, j = 특정 국가그룹(한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w = 전 세계,

X = 해외직접투자(Stocks)

한국 중소기업들 해외 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5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2.28로 가장 높았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6.22로 2위,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5.33으로 3위를 하였다. 반면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21.99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지수가 4.48,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이 3.11로 2, 3위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표 4-10]은 한국 대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으로 2002년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68억 8,875만 달러를 투자해 2002년 대기업의 총제조업 투자에 40.3%를 차지하였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산업에 26억 391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002년에 15.4%를 차지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 22억 4,850만 달러인 13.3%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에 한국 대기업들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집중도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의 투자 증대로 약화되었다. 201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대기업의 총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에 27.6%인 167억 5,19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21.6%인 131억 5,869만 달러를 투자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2위를 차지했다.

표 4-8.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품, 음료, 담배	151.89	176.94	211.80	254.43	292.99	351.59	380.99	401.92	429.52	458.70	508.0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769.47	1,907.62	2,076.65	2,281.13	2,518.57	2,728.48	2,931.46	3,054.52	3,218.82	3,474.74	3,651.15
목재 및 나무 제품	65.29	70.17	79.23	85.44	94.43	104.96	111.11	115.32	200.87	268.39	272.2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81.69	95.82	123.49	133.64	147.92	171.69	189.81	201.96	231.43	253.62	264.3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53	7.87	14.32	14.40	61.68	85.40	107.16	117.57	120.63	121.21	122.34
화학물 및 화학제품	389.21	446.61	523.31	604.30	707.38	960.52	1,091.49	1,137.58	1,221.40	1,283.75	1,327.3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75.53	93.16	129.61	163.12	211.61	300.76	360.74	385.77	416.77	456.18	505.96
비금속광물 제품	147.14	157.28	177.04	206.49	236.18	263.64	297.60	356.99	376.86	398.57	428.96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 제품	392.11	493.85	604.51	704.76	838.09	1,083.35	1,292.54	1,421.75	1,546.66	1,676.25	1,758.10
기타 기계 및 장비	167.24	225.92	302.92	381.62	468.32	628.61	768.44	849.39	951.33	1,065.79	1,189.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019.22	1,199.06	1,532.93	1,824.85	2,177.04	2,583.31	2,945.97	3,202.22	3,501.59	3,775.99	4,032.8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46.79	169.23	192.46	240.35	303.85	359.71	409.73	450.48	522.58	601.95	659.00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341.71	404.52	510.86	682.34	884.17	1,183.31	1,505.25	1,693.65	1,920.88	2,224.20	2,425.89
기타 제조업	600.29	688.38	801.67	901.96	1,030.27	1,165.64	1,324.17	1,458.22	1,601.63	1,747.69	1,901.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표 4-9.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
(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 음료, 담배	0.62	0.48	0.70	0.53	0.4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2.28	17.88	26.21	26.19	21.99
목재 및 나무 제품	0.74	0.73	1.22	1.58	1.5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6.22	1.26	1.68	1.10	1.5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9	2.13	3.24	1.35	1.06
화합물 및 화학제품	0.78	0.75	1.19	0.85	0.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31	3.97	5.97	4.01	3.11
비금속광물 제품	4.16	3.18	5.34	3.62	2.92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1.92	2.11	4.00	2.03	1.69
기타 기계 및 장비	2.54	2.34	3.61	2.68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5.33	5.23	8.61	5.85	4.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44	3.92	6.01	3.69	3.0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16	1.91	3.61	2.57	2.22
기타 제조업	1.43	0.96	1.52	1.04	0.83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6. 1.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표 4-11]은 한국 대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로 한국 대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비교우위를 측정하였다. 2005년 중소기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4.19,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산업이 2.94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에서는 1위였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1.5로 6위에 올랐다. 2011년에는 산업별 비교우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3.57로 1위,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3.28로 2위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11년의 대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의 변화를 관찰해 보

면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은 2005년 비교우위산업에서 2008년부터 비교열위산업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열위산업에서 2008년 이후 비교우위산업으로 변화되었다.

표 4-10.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2002~12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품품, 음료, 담배	612.96	645.13	731.44	880.31	1,111.48	1,682.49	2,198.07	2,438.45	2,733.76	3,128.65	3,387.89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153.28	1,277.12	1,460.23	1,682.49	1,815.14	2,037.35	2,252.22	2,387.83	2,648.43	3,143.52	3,410.66
목재 및 나무 제품	87.50	87.69	89.31	89.41	91.52	92.31	96.24	104.14	113.17	124.00	135.12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49.91	150.71	164.11	166.21	166.71	166.71	166.71	170.01	181.61	182.20	182.9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4.87	5.14	37.71	46.12	73.86	85.86	93.63	146.16	316.56	406.08	518.30
화학물 및 화학제품	881.92	989.69	1,096.00	1,204.15	1,577.89	2,014.78	2,264.68	2,482.20	4,055.61	4,551.01	4,863.8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21.50	428.22	501.59	560.89	703.44	843.47	1,002.65	1,097.75	1,151.48	1,504.77	1,810.13
비금속광물 제품	641.98	716.99	791.18	878.11	989.55	1,050.88	1,154.18	1,293.58	1,389.58	1,484.97	1,554.27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 제품	2,603.91	3,095.19	3,330.16	3,701.42	3,979.89	4,517.01	5,104.96	5,446.87	5,888.64	7,921.41	9,072.04
기타 기계 및 장비	302.06	331.46	461.71	496.55	559.52	712.95	1,030.00	1,283.71	1,617.52	1,902.48	2,108.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6,888.75	7,118.72	8,037.57	8,641.90	9,670.48	11,216.86	11,778.70	12,283.58	13,711.08	15,389.51	16,751.9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11.55	533.32	598.13	657.71	904.46	1,154.70	1,531.93	1,798.16	1,929.33	2,136.84	2,420.98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2,248.50	2,438.52	2,729.68	3,336.54	4,424.30	6,097.40	7,659.25	8,592.70	9,283.20	10,694.70	13,158.69
기타 제조업	488.00	505.64	528.18	562.64	635.38	762.31	850.56	907.81	983.96	1,323.24	1,427.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cisas.html>(검색일: 2015. 11. 10).

표 4-11.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
(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료품, 음료, 담배	0.35	0.50	0.47	0.53	0.50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50	2.48	2.27	3.35	3.57
목재 및 나무 제품	0.13	0.11	0.12	0.14	0.13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29	0.20	0.16	0.13	0.2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6	0.34	0.45	0.55	0.6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26	0.28	0.29	0.44	0.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89	1.99	1.89	1.72	1.85
비금속광물 제품	2.94	2.23	2.15	2.07	1.95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1.67	1.51	1.70	1.20	1.44
기타 기계 및 장비	0.55	0.57	0.61	0.71	0.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4.19	3.78	3.67	3.56	3.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56	2.65	2.66	2.12	1.96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0.94	1.76	2.03	1.93	1.91
기타 제조업	0.15	0.11	0.11	0.10	0.11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6. 1.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4장에서 국내 경쟁력과 해외 경쟁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의 조합으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정부가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에서 GVC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해외에서 GVC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 또한 해외에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표 4-4]는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산출하여, 산업별 국내 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표 4-9]는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 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5-1]은 [표 4-4]와 [표 4-9]에서 산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조

합한 표이다.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최하가 2005년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0.09로 최하이고 2011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61로 최고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경우 최하가 2011년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이 0.41, 그리고 최고는 2009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26.21이다. 즉,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이 두 변수간과 각 변수 내에서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 그래프 내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0에서 10 규모로 환산하였다.

[표 5-2]는 각각의 변수들을 10스케일로 환산한 표이며, 연구기간은 OECD 부가가치 수출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2005년, 2008~11년의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1]은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국내외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의 조합을 도식화하였다.

표 5-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기초자료)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식료품, 음료, 담배	0.33	0.62	0.32	0.48	0.36	0.70	0.38	0.53	0.40	0.4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72	12.28	0.62	17.88	0.61	26.21	0.61	26.19	0.63	21.99
목재 및 나무 제품	0.04	0.74	0.03	0.73	0.04	1.22	0.04	1.58	0.05	1.5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68	6.22	0.76	1.26	0.69	1.68	0.72	1.10	0.73	1.5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	0.29	0.09	2.13	0.13	3.24	0.20	1.35	0.22	1.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42	0.78	1.49	0.75	1.49	1.19	1.35	0.85	1.03	0.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3	3.31	1.10	3.97	1.22	5.97	1.30	4.01	1.22	3.11
비금속광물 제품	0.49	4.16	0.40	3.18	0.32	5.34	0.37	3.62	0.38	2.92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0.89	1.92	0.91	2.11	1.20	4.00	1.10	2.03	1.20	1.69

표 5-1. 계속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기타 기계 및 장비	1.03	2.54	1.17	2.34	1.20	3.61	1.26	2.68	1.32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0.93	5.33	1.38	5.23	1.39	8.61	1.35	5.85	1.61	4.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77	3.44	0.85	3.92	0.98	6.01	0.89	3.69	1.00	3.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1.02	1.16	1.06	1.91	0.95	3.61	1.09	2.57	1.20	2.22
기타 제조업	0.45	1.43	0.35	0.96	0.32	1.52	0.12	1.04	0.12	0.83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표 5-2.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10규모 환산자료)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식품, 음료, 담배	2.04	0.23	1.98	0.18	2.27	0.27	2.37	0.20	2.49	0.15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4.48	4.69	3.87	6.83	3.78	10.01	3.80	10.00	3.91	8.39
목재 및 나무 제품	0.23	0.28	0.19	0.28	0.23	0.47	0.27	0.60	0.33	0.61
펄프, 종이, 출판, 인쇄	4.22	2.38	4.71	0.48	4.30	0.64	4.47	0.42	4.53	0.6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57	0.11	0.54	0.81	0.79	1.24	1.24	0.52	1.37	0.41
화학물 및 화학제품	8.84	0.30	9.28	0.29	9.23	0.46	8.40	0.33	6.38	0.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6.99	1.26	6.84	1.51	7.56	2.28	8.08	1.53	7.59	1.19
비금속광물제품	3.04	1.59	2.45	1.21	1.99	2.04	2.31	1.38	2.37	1.11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5.52	0.73	5.66	0.81	7.47	1.53	6.81	0.77	7.43	0.65
기타 기계 및 장비	6.39	0.97	7.27	0.89	7.48	1.38	7.84	1.02	8.18	0.8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5.79	2.04	8.58	2.00	8.65	3.29	8.37	2.23	9.97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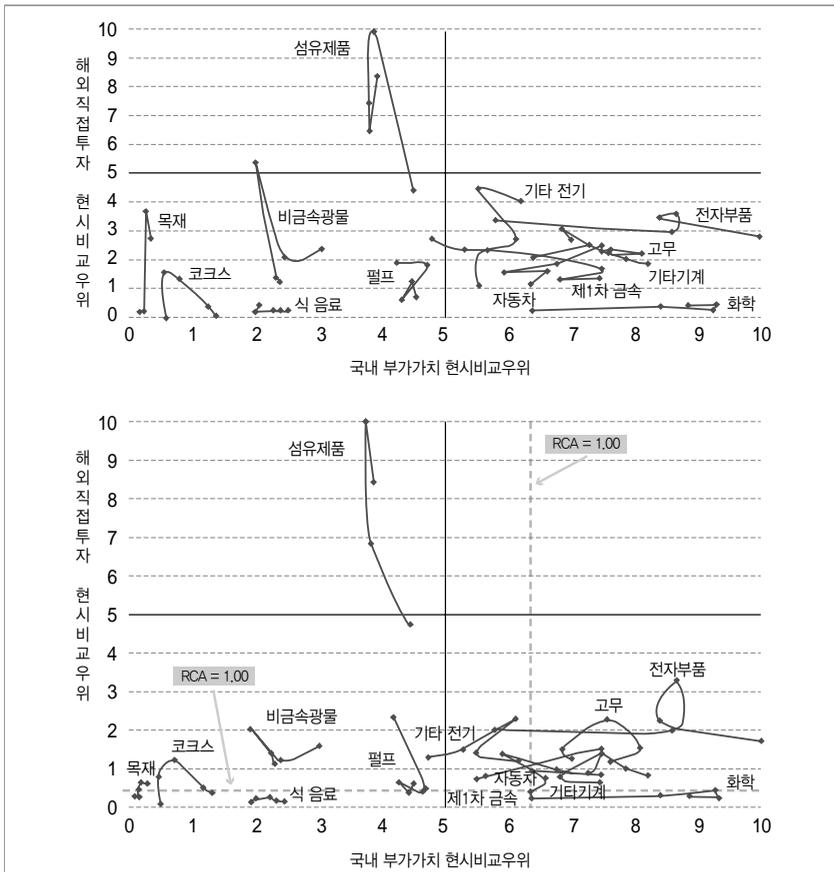
표 5-2. 계속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77	1.31	5.29	1.50	6.11	2.29	5.50	1.41	6.18	1.1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6.36	0.44	6.59	0.73	5.92	1.38	6.76	0.98	7.45	0.85
기타 제조업	2.77	0.55	2.18	0.36	2.00	0.58	0.76	0.40	0.76	0.32

주: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최저 0, 최고 10 규모로 환산.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그림 5-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포



자료: UNCTAD, OECD,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분석 및 구성.

[그림 5-1]은 [표 5-2]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로축은 국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낸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RCA=1)인 위치는 가로축은 6.21이고 세로축은 0.38이며, 두 RCA=1인 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에서 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그림 5-1]의 3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낮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모두 저조한 산업을 의미하며, 2005년 기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이에 속했고, 2011년 기준으로는 단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만이 3사분면에 위치했다.

이에 속한 산업들의 속성을 볼 때, 대부분의 산업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지하 자원 부재와 기술력 약세에 따른 경쟁열위산업이다. 즉 지역 특유의 우위도 열악하고 기업 특유의 우위도 낮고, 해외 자회사 통합 운영에 따른 내부화 특유의 우위도 없는 산업들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3사분면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산업들이다.

2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높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없지만 해외 생산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그리고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이 이에 속했다. 이 산업은 3사분면에,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즉 생산 및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켰고, 해외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내부화 특유의 우위(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산업들이다. 예를 들어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은 2005년에는 3사분면에 위치하였

다가 2008년부터 2사분면으로 이동하였다(표 5-1 참고). 즉 신흥국들의 개방 및 발전과 같은 글로벌화에 따라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이 생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계속 상실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지역 특유의 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 즉 저가 노동력, 지하자원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킨 산업들이다.

특히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의 중소기업들에는 해외 생산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자금 또는 경영능력과 연계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낮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생산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다. 2005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만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한국이 생산지로서의 지역 특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만큼의 내부화 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즉 GVC가 더욱 확장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1]의 1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높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산업을 가리키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동해야 할 위치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든 연도에 1사분면에 위치한 산업들이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은 2005년 기준 2사분면에서 2011년 기준 1사분면으로 이동한 산업들이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약 30%(표 4-7 참고)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서의 경쟁력이 없어 [그림 5-1]의 3사분면과 4사분면에 많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의 경쟁력을 측정 비교한 결과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위치한, 즉 해외직접투자에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업들에 비해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 분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2.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표 5-3]은 [표 4-6]과 [표 4-11]에서 산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조합한 표이며, [표 5-4]는 중소기업의 [표 5-2]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표이다. 그리고 [그림 5-2]는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산업별 국내외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조합을 [그림 5-1]과 같은 방식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5-2]는 [표 5-4]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로축은 국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낸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RCA=1)인 위치는 가로축은 3.39이고 세로축은 2.39이며, 두 RCA=1인 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낮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모두 저조한 [그림 5-2]의 3사분면에는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산업,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두 위치하였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은 2005년에 2사분면에서 2008년부터 3사분면으로 이동하였다.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높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없지만 해외 생산 경쟁력이 있는 2사분면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이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두 위치하였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낮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생산 경쟁력이 낮은 3사분면에 계속 위치하였다.

표 5-3.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기초)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식품, 음료, 담배	0.11	0.35	0.09	0.50	0.09	0.47	0.08	0.53	0.09	0.50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14	1.50	0.16	2.48	0.15	2.27	0.16	3.35	0.13	3.57
목재 및 나무 제품	0.00	0.13	0.00	0.11	0.01	0.12	0.00	0.14	0.00	0.13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29	1.29	0.21	0.20	0.13	0.16	0.08	0.13	0.09	0.2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0	0.16	2.52	0.34	2.06	0.45	2.03	0.55	2.55	0.64
화학물 및 화학제품	0.64	0.26	0.62	0.28	0.65	0.29	0.64	0.44	0.99	0.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0.46	1.89	0.43	1.99	0.35	1.89	0.33	1.72	0.40	1.85
비금속광물 제품	0.20	2.94	0.16	2.23	0.20	2.15	0.23	2.07	0.22	1.95
제1차금속산업/금 속가공제품	0.62	1.67	0.68	1.51	0.73	1.70	0.71	1.20	0.73	1.44
기타 기계 및 장비	0.46	0.55	0.42	0.57	0.38	0.61	0.42	0.71	0.39	0.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2.19	4.19	1.60	3.78	1.69	3.67	1.70	3.56	1.17	3.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26	1.56	0.42	2.65	0.49	2.66	0.42	2.12	0.40	1.96

표 5-3. 계속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2.95	0.94	2.53	1.76	2.41	2.03	2.39	1.93	2.34	1.91
기타 제조업	0.02	0.15	0.04	0.11	0.06	0.11	0.02	0.10	0.02	0.11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표 5-4.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10규모 환산자료)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식품, 음료, 담배	0.37	0.84	0.32	1.20	0.31	1.13	0.29	1.25	0.31	1.18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47	3.59	0.53	5.92	0.52	5.42	0.53	7.99	0.45	8.52
목재 및 나무 제품	0.01	0.31	0.02	0.27	0.02	0.29	0.01	0.33	0.01	0.31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98	3.07	0.71	0.48	0.43	0.38	0.27	0.32	0.30	0.48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6.78	0.37	8.55	0.80	6.97	1.07	6.87	1.32	8.64	1.53
화학물 및 화학제품	2.16	0.62	2.12	0.67	2.19	0.69	2.19	1.05	3.36	0.9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6	4.51	1.47	4.75	1.18	4.50	1.12	4.10	1.34	4.40
비금속광물 제품	0.69	7.01	0.55	5.31	0.67	5.12	0.76	4.94	0.75	4.65
제1차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2.10	3.99	2.29	3.60	2.47	4.06	2.40	2.86	2.48	3.43
기타 기계 및 장비	1.57	1.31	1.41	1.35	1.28	1.44	1.41	1.69	1.33	1.6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7.44	10.00	5.41	9.01	5.73	8.75	5.77	8.49	3.98	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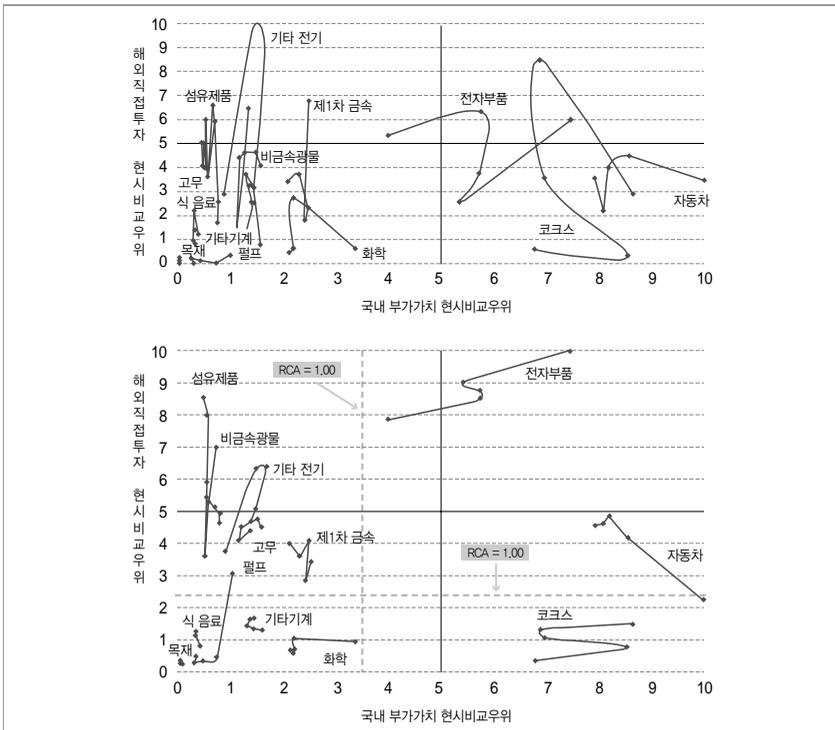
표 5-4. 계속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 가치 RCA	OFDI RCA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87	3.72	1.44	6.32	1.65	6.35	1.44	5.05	1.35	4.6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9.99	2.25	8.57	4.20	8.18	4.85	8.09	4.61	7.92	4.56
기타 제조업	0.08	0.35	0.13	0.26	0.21	0.25	0.06	0.24	0.07	0.27

주: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최저 0, 최고 10 규모로 환산.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색일: 2016. 1.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그림 5-2.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포



자료: UNCTAD, OECD,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분석 및 구성.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2005년부터 계속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높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1사분면에 위치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에 4사분면에 2008년 이후 1사분면에 위치하였다.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와 자동차의 대기업에 의해 1사분면의 산업들이 예상대로 위치하였지만,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중소기업들에 비해 소수의 산업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된다.

3.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발전사례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발전 경로 및 전략의 실례로 본 연구에서는 섬유 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서 (주)시몬느(Simone),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 (주)이오테크닉스(EO Technics Co., Ltd.)를 선택하였다.

가. (주)시몬느(Simone)

(주)시몬느는 1987년 6월 자본금 1억 원과 직원 15명으로 창업하여, 글로벌 명품 핸드백을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공급하는 수출기업으로 시작하였다. 1990년 초중반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두 가지의 전략을 실행하였다.

첫째는 단순 OEM 방식 사업자에서 제조사 디자인 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자인, 상품 기획 및 소재 분야에 투자를 하였다. 이는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으로의 향상(Upgrading)을 의미한다. 둘째는 신흥국들과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에 따라 해외, 특히 신흥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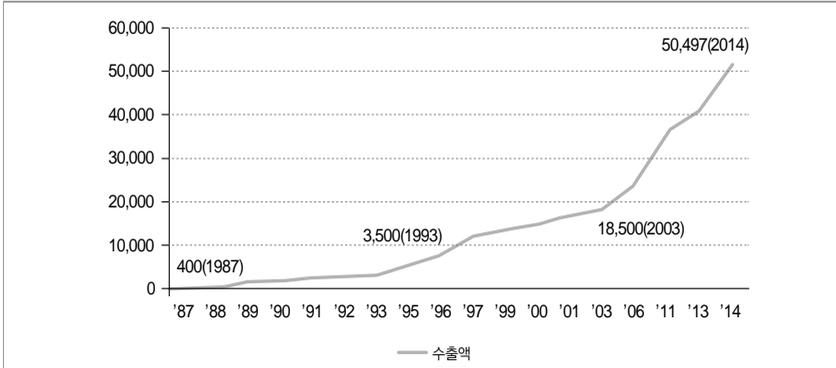
그 결과 시몬느는 약 15만 개 이상의 핸드백 디자인 패턴을 보유하게 되었고, 1987년 설립 당시 400만 달러의 수출액이 2014년 6월 말 기준 5억 497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김장훈 외 2013; 김동은 2014).

[그림 5-3]과 [표 5-5]의 자료에 의하면, (주)시몬느는 1987년 회사를 설립할 당시 OEM 방식으로 4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1989년까지 계속 수출이 증가되었다. 이는 국내의 생산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로 [그림 5-1]의 4사분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신흥국들의 등장 및 국내 임금 인상 등의 많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주)시몬느는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표 5-5]에 의하면, (주)시몬느는 회사 설립 후 5년 뒤인 1992년 중국 광주에 첫 번째 해외 공장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타 지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해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였다. [그림 5-3]의 수출액이 급증하는 패턴은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해외직접투자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시몬느가 [그림 5-1]의 4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시몬느 수출액

(단위: 만 달러)



자료: (주)시몬느 홈페이지, <http://www.simone.co.kr/swf/main.asp>(검색일: 2016. 2. 3).

표 5-5. (주)시몬느의 수상, 인증 획득 및 글로벌화 전략

연도	대표 수상 및 정부 인증 획득	대표 글로벌화 전략
1987		(주)시몬느 설립
1988	5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1989	1,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 대통령 표창	
1990		뉴욕 지사 설립
1991	수출의 날 산업 포장 수상	
1992		중국 광저우 해외공장 설립 (100% 단독 출자)
1993		중국 광저우 제2공장 증설 홍콩 지사 설립
1995		중국 광저우 제3공장 증설
1996	5,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1997		중국 광저우 제4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1999		인도네시아 제2공장 설립
2000	1억 달러 수출탑 수상	중국 광저우 신공장 준공 이전
2003		중국 내주 동천 공장 설립
2006		중국 칭다오 제3공장 완공
2009		베트남 호치민 공장 완공
2011		베트남 Tian Giang 공장 완공
2015	자체 브랜드 '0914' 런칭	

자료: (주)시몬느 홈페이지, <http://www.simone.co.kr/swf/main.asp>(검색일: 2016. 2. 3).

나. (주)이오테크닉스(EO Technics Co., Ltd.)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된 (주)이오테크닉스(EO Technics Co., Ltd.)의 EO는 전자광학(Electro Optics)를 의미하며, 반도체의 표면에 로고(Logo) 등을 마킹하는 레이저 마커(Laser Marker)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레이저 드릴링, 트리밍, 커팅 등 다양한 레이저 응용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이오테크닉스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현재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매출액은 1999년 193억 원에서 2014년 12월 현재 13배 이상 증가한 2,73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정부의 R&D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임채윤, 손수정 2009).

즉 (주)이오테크닉스의 1989년 설립 당시 [그림 5-1]의 3사분면에 위치했다고 가정한다면, (주)이오테크닉스는 정부의 R&D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켜 4사분면으로 이동하고,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로 1사분면으로의 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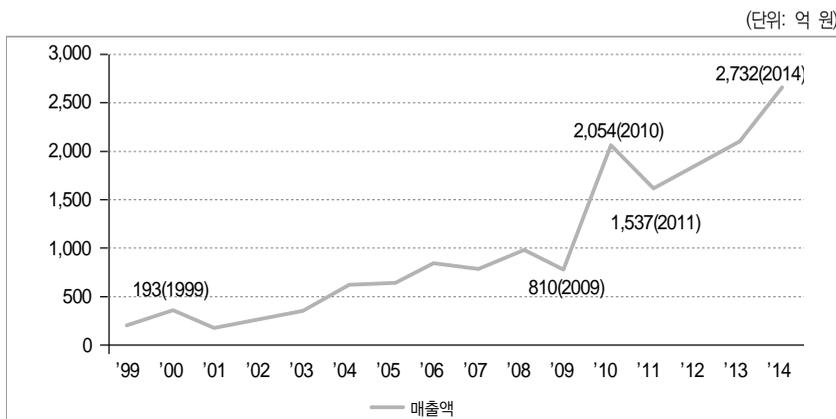
[표 5-6]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주)이오테크닉스는 약 124억 원의 정부 R&D 자금을 수혜하였고, 이러한 R&D 자금 수혜실적은 [표 5-7]의 대표 수상 및 정부 인증 획득과 직결된다. (주)이오테크닉스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체 기술도 개발하였지만, 해외 M&A 활동으로 2009년에 영국 Powerlase를, 그리고 2011년에는 독일 Innovavent GmbH를 인수하며 원천기술 습득에 노력하였다.

또한 (주)이오테크닉스는 1998년의 필리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외직접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0년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중국의 텐진, 쑤저우, 그리고 2014년에는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그림 5-4]의 매출액 증가추세를 분석해볼 때, 2000년에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주)이오테크닉스 자체 기술능력과 국내 생산 경쟁력으로 매출액을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시켰고, 그 이후의 급성장은 기존의 기술력, 국내 생산 경쟁력, 해외 M&A와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합쳐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림 5-4. (주)이오테크닉스의 매출액 증가추세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dsab001/main.do>(검색일: 2016. 2. 3).

표 5-6. (주)이오테크닉스의 정부 R&D 지원자금 수혜실적

연도	담당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 원)	
						정부	매칭
2014	산업통상 자원부	소재부품기술 개발	30 μ m급 고정 밀 맞출형 3D 프린팅용 유기 복합소재 핵심기술 개발	2014년 10월	2021년 7월	2,330	265
2010	지식경제부	제조기반산업 원천기술 개발	펄토초 레이저 기반 비열 초미세 녹색 가공기술	2010년 6월	2015년 3월	3,150	250
2009	지식경제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 기술 개발	300mm급 반도체 후 공정 패키징 장비	2009년 3월	2013년 2월	2,850	575
2009	중소기업청	기업협동형 기술 개발	70W급 광 fiber 형 장수명 레이저 납땜/용접 head 개발	2009년 6월	2010년 5월	200	15
2008	지식경제부	산업고도화 기술 개발	다단계증폭결합형 100W급 Scalable 1064nm 펄스광섬유 레이저 개발	2008년 11월	2011년 5월	980	196

표 5-6. 계속

연도	담당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 원)	
						정부	매칭
200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상용 화기술 개발	SR LDA 설비 개발	2007년 12월	2009년 11월	266	38
2004	지식경제부	국제공동기술 개발	적색영역에서의 파장가변레이저 개발	2004년 10월	2006년 9월	150	50
2003	지식경제부	산업혁신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2003년 4월	2008년 3월	1,298	1,056
2002	지식경제부	산업혁신기술 개발	DPSSL 발진기를 이용한 300mm 웨이퍼레벨 CSP 마킹시스템 개발	2002년 10월	2004년 7월	1,073	728
2001	지식경제부		혈관확장용 차세대 풍선도자의 개발			116	139
총계						12,413	3,312

자료: 임채윤 외(2009), NTIS 국가 R&D 사업 관리 서비스, <http://mdgate.ntis.go.kr>(검색일: 2016. 2. 3).

표 5-7. (주)이오테크닉스의 수상, 인증 획득 및 글로벌화 전략

연도	대표 수상 및 정부 인증 획득	대표적 글로벌화 전략
1989		이오테크닉스 설립
1996	유망 선진기술 기업 지정(중소기업청) 국산 신기술 인정(KT마크) 획득(과학기술처)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	
1998	벤처기업 등록 ISO 9001/FDA 인증 EM Mark 획득(통상산업부) 우수품질 인증제품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필리핀 지사 설립
1999		미국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2000	KOSDAQ 상장 세계 일등상품 생산기업 선정(산업자원부) CE/S2 인증 획득 1,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대통령 표창 Cypress Semiconductor 우수 공급자상	대만 현지 법인 설립 태국 &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01	한국 World-Class 제품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지정(산업통상자원부)	

표 5-7. 계속

연도	대표 수상 및 정부 인증 획득	대표적 글로벌화 전략
2002	SEMI 인증 획득(CSM) CE 인증 획득	
2003		중국 텐진 현지 법인 설립
2004	2,000만 달러 수출 탑 수상 장영실상 수상(CSM2000, CSM3000)	
2005	3,000만 달러 수출 탑 수상	
2008	5,000만 달러 수출 탑 수상	중국 쑤저우 현지 법인 설립
2009	코스닥 히트챔피언 선정 Forbes 아시아 · 태평양지역 Bset 200대 중소기업 선정	영국 Powerlase 인수
2010	7,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NET 신기술 인증(지식경제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중소기업청) 수출강소기업 Plus 500 선정 코스닥 히트챔피언 선정	
2011	벤처 매출 천억기업 수상 KRX 히트챔피언 선정	중국 쑤저우 공장 준공 독일 Innovavent GmbH 인수
2012	특허경영우수상 수상(특허청장 표창) KOTRA 글로벌 브랜드 2012 금상 수상	
2013	IBK 무역탑 금탑	
2014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코스닥 히트챔피언 선정(6년연속)	베트남 지사 설립
2015	World class 300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 Fobes 아시아 · 태평양지역 Best 200대 중소기업 선정(5회 연속)	

자료: (주)이오테크닉스 홈페이지, <http://www.eotechnics.com/company/history.php>(검색일: 2016. 2. 3).

4.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촉진 전략 및 정부정책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진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소기업들의 생산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GVC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 축적을 기반으로 GVC 내부 또는 다른 GVC에서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으로의 향상(upgrading)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GVC의 고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개선과 혁신능력의 부족, 적절한 금융 및 인적자본의 부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능력 부족, 대규모 계약 실행능력 부족 등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태생적인 핸디캡은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안정된 거시경제정책과 재무, 노동 교육 등과 같이 관련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융합되어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 보다 호의적인 경영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다(UNCTAD 2007). 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전략 및 정부정책을 [그림 5-1]에서 보여준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결과와 APEC(2014)에서 제시한 다국적 선도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기준인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s),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과 UNCTAD(2006), OECD(2007), UNCTAD(2013)이 제시하는 정부정책적 시사점을 연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외재적 강점 중 하나로 제품속성(Product Attributes)인 품질, 가격, 그리고 배송능력은 중소기업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간섭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approach)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박람회, 콘퍼런스, 포럼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전시회 등은 중소기업들에 하도급계약 또는 가능한 외국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VC 참여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OECD 2007).

기업속성(Company Attributes)¹²⁾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적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5-1]의 2사분면에 대표적인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우위가 없고, 해외직접투자에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보편적인 GVC 지배구조로 볼 때 구매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 또는 수요자주도형 글로벌 가치사슬로 생산단가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에 동남아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process) 또는 제품 향상(product upgrading)을 통해 기존의 GVC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기능(function) 또는 사슬(chain upgrading)을 통해 동일한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이 있다. 셋째로는 GVC의 참여기업 또는 공급업체에서 선도 또는 중핵 기업으로 자신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12) 기업의 일곱 가지 속성과 연계되는 한국정부의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부록 1에 정리되어 있다.

신발 산업에서 소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문자위탁생산자(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로 GVC에 참여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향상전략(upgrading strategy)을 실행하여 제조업자 개발생산자(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er)로 발전하고, 또 다른 향상전략을 통해 기업 자체 브랜드를 창설하면서 자체 상표생산자(OBM: Original Brand Manufacturer)로 GVC의 중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해외시장에 관한 수요, 경쟁자, 협력업체, 유통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전개하고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약점인 재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FTA 및 지역경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빠른 정보교환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연계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1]의 3사분면에 위치한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생산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모두 낮은 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들이 위치한 2사분면 또는 기타 산업들이 분포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3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산업의 고유한 성격이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타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국내에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지하자원의 부재, 임금의 현격한 격차,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열위 등이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같은 기업 특

유의 우위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 생산기지를 상대적으로 지역 특유의 우위가 높은 국가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산업의 성격이 지역 특유의 열위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지적재산권 등 기업 특유의 우위로 극복이 가능한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그림 5-1]의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그림 5-1]과 [그림 5-2]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치를 비교해볼 때,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에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이 국내의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들로부터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GVC를 주도하는 해외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대·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5-1]에 3사분면의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을 전략적 투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산업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국내 고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증액 투자할 때 또는 외국 다국적기업에 한국 중소기업과 연계할 때 인센티브를 가중해 주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된다.

[그림 5-1]의 4사분면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그림 5-2]의 국내 대기업들 분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에서는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만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4사분면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없다. 즉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은 있지만, 규모가 크고 경쟁이 더욱 심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후에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향상시켜, GVC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은 국내에 유지하고,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저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상대적으로 지역 특유의 우위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때 동반진출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해외 생산 경쟁력도 높여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내 대·중소기업들간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제후에 재정적 지원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로의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해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후관계를 통한 발전전략이다. [그림 5-1]의 4사분면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세계 부가가치 생산대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즉 이러한 산업들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업 특유의 또는 지역 특유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들과 생산뿐만 아니라 R&D, 유통 등 GVC 전 생산활동에서 폭넓은 제후를 통해 해외 다국적기업 주도의 GVC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는 국내 중소기업들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서 참여와 향상(upgrading)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간 협업의 개념이 단순한 R&D 협업과 같이 제한된 협업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 활동에 연계된 협업으로 확장되어야 효율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 및 인적 자원의 부족, 기술력 부족, 그리고 해외경험 부족과 같은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제6장 |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가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업생태계에 따라 정부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 중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지배되고, 이러한 GVC가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다국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현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생산활동과 GVC와의 연관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GVC에 참여 또는 GVC 내에서의 향상을 통한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 GVC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능력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GVC 내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 또는 향상을 통해서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UNCTAD 2013).

GVC 중심의 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GVC의 구성원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재의 수입이 자유롭고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춘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FTA와 그밖의 지역 경제통합은 단순한 시장 확장의 개념에서 GVC에

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지역적 생산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즉 국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외향성 국제화로만 인식되어왔던 편협한 정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국제화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폭넓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해외 선진기업들로부터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이렇게 전수받은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우리 기업들의 고유한 자원과 능력(resources and capabilities)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창출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우리보다 낮은 경제 국가들로 진출하여 발휘되었고, 이로부터 창출된 경제적 이익은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본으로 사용되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경쟁력이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생태계는 최근 급부상하는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전략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순차적으로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는 도약전략(Leapfrogging Strategy)이라고 한다면,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도움을 발판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저개발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동시에 실행하는 가속화되고 이중적인 도약판전략(Springboard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Lou and Tung 2007).

즉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에서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생태계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에 비중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을 의미한다. 내향형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외향형 국제화 활동에 선행하며, 내향형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가 외향형 국제화 활동의 발전 정도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 내향형과 외향형 국제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Welch and Luostarinen 1993).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자국 내 GVC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유인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부가가치 기준 데이터로 새롭게 정립된 국가간의 상호 관계, 해외수요와 국내 GDP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거 유인정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FDI 입지 결정요인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상이한 GVC의 형태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특히 GVC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GVC 활동의 단계(knowledge creation stage, main operational stage, distribution & support stage), 관리방식(FDI, Arm's length transaction, Non-equity modes), 그리고 산업의 성격(global integration, global dispersion)에 따라서 차별화되어야 한다(Giroud and Mirza 2015).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생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산업별 경쟁력 변화, 산업별 GVC와 FDI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외기업의 국내기업과의 연계도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국제화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GVC를 지배하는 정도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넷째, 기업생태계 관점의 사회적 역량(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업생태계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복잡한 기업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생태계는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기업생태계는 산업수준의 가치사슬이지만, 단순한 수요·공급자의 기계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community)라는 단어는 기업생태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생태계의 성공 여부는 기업, 정부, 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일치단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생태계는 문화에 의해 한층 강화된 가치사슬이다. 즉 가치사슬은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다중관계의 성격을 지닌 기업생태계는 가치사슬이라기보다는 가치 망(value web)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Thomas 2008).

[그림 2-2]에서 제시되었듯 다국적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인 사업운영의 건전성(Business Integrity)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이러한 기업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이다.

즉 가치사슬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축적된 가치로 정의되는 반면, 기업생태계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금전적인 장점으로 정의된다. 기업생태계의 성장은 비금전적인 장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탁월한 상호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무형의 역량을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자산이란 참여자간의 반복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설비, 시설, 기술과 같은 물리적 자산과 디자인, 경쟁력, 교육과 같은 인적

자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산은 기업생태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려면 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사회적 역량 구축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고희채. 2015. 『한·중·일·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Global Strategy Report 15-00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김장훈, 박진용, 이근철, 권기욱, 김주권. 2013. 「Born-Global 기업의 동태적 성공 요인 분석: 성공기업 사례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3(5), pp. 409~436.
- 김종일, 이성아. 2008. 「생산의 국제적 분업과 내향적 국제화에 대한 연구: FDI의 추이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GVC 편입을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27, pp. 101~129.
-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Issue Paper Series No. 2013-4. 한국은행.
- 이준호. 2007.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학기술정책』, pp. 50~63. (MAR-APR)
- 이준호, 김종일. 2007.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과제』. 뉴브릿지연구 07-01. 중소기업연구원.
- 이준호, 송창석, 이춘우. 2013.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 기본연구 13-11. 중소기업연구원.
- 이준호, 최정일, 이옥동. 2014.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사례 및 지원 과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7), pp. 159~175.
- 임채윤, 손수정. 2009.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한국혁신학회지』, 4(2), pp. 161~188.
- 전응길. 2013. 「무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글로벌 가치사슬」, 『나라경제』, pp. 40~42. (May)
- 정성훈. 2014.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 정책연구 시리즈 2014-15. 한국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청. 2016a.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 _____. 2016b.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외국문 자료]

- 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2014. "Integrating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Policy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Issue Paper, No. 6.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5. "Integrating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Challenges and Policy Actions in Asia."
-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9. "Big Gains with Small Partners: What MNEs look for in their SME Suppliers."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2009.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sia and the Pacific: Trends and prospects." *Studies in Trade and Investment*, No. 65. Bangkok: United Nations.
- Gereffi, G., J. Humphrey and T. Sturgeon.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 pp. 78-104.
- Giroud, A. and H. Mirza. 2015. "Refining of FDI motivations by integrating global value chains' consideration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23(1), pp. 67-76.
- Kaplinsky, R. and M. Morris. 2001. "A Handbook for Value Chain Research."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IDRC).
- Luo, Y. and R. Tung. 2007. "International expansion of emerging market enterprises: A springboard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pp. 481-498.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7. "The OECD Tokyo Action Statement for Enhancing the Role of SMEs in Global Value Chains." OECD Global Conference in Tokyo.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nd World Bank Group. 2015. "Inclusive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tions in trade and complementary area for GVC integration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submission to G20 Trade Ministers Meeting Istanbul, Turkey, 6 October 2015.

- Thomas, Cedric. 2008. "Introduction to the OW2 Consortium Business Ecosystems Strategy." Working Paper.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06. "Global Value Chain for Building National Productive Capacities." GE.06-52617.
- _____. 2007.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Global Value Chains." GE.07-51582.
- _____. 2010. "Integrating Developing Countries'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 _____.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 Welch, L. S. and P. K. Luostarinen. 1993. "Inward-Outward Connections in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1), pp. 46-58.

[온라인 자료]

- 김동은. 2014. 「15만개 넘는 디자인 패턴 제작... 美·유럽 명품 컬렉션 라인 유치」. 『MK뉴스』. <http://m.mk.co.kr/news/plan/2014/1502185>(검색일: 2016. 2. 3).
- (주)시몬느 홈페이지. <http://www.simone.co.kr/swf/main.asp>(검색일: 2016. 2. 3).
- (주)이오테크닉스 홈페이지. <http://www.eotechnics.com/company/history.php>(검색일: 2016. 2. 3).
- 임채윤 외. 2009. NTIS 국가 R&D 사업 관리 서비스, <http://mdgate.ntis.go.kr>(검색일: 2016. 2. 3).
-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dsab001/main.do>(검색일: 2016. 2. 3).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0. 31, 2015. 11. 10).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검색일: 2015. 10. 3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0. 2, 2015. 11. 10).
-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검

색일: 2016. 1. 15).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검색일: 2015. 5. 7).

_____.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검색일: 2015. 8. 19).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5. 8. 19)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
(검색일: 2015. 11. 10, 2016. 1. 11).

APEC(2014)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선도기업인 다국적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을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s)과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2]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2016)과 기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제품속성(Product Attributes): 제품 품질, 가격, 그리고 배송능력은 중소기업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간섭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approach)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박람회, 콘퍼런스, 포럼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OECD(2007)에 의하면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전시회 등은 중소기업들에 하도급계약 또는 가능한 외국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VC 참여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

부표 1-1. 제품속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소기업과 국내외 유통채널(MD)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정보 제공	5,000억 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업종 중심의 단체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
KOTRA	해외시장조사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사업파트너 정보 조사, 맞춤형 시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진출 타깃 시장에 대한 조사서비스 제공	-

부표 1-1. 계속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KOTRA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출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수출상담기회 제공.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무역사절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수출을 지원	-
	무역, 투자정보 포털	Global Window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해외시장정보 제공	-
	해외투자 진출정보 포털(OIS)	24개 해외투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투자정보 포털	-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2. 재무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중소기업의 재무 자산의 한계로 인한 계약 불이행, 파산과 같은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정책.

부표 1-2. 재무 건정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 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550억 원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보험 인수 17조 원
	수출금융용자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250억 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보증잔액 40.5조 원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350억 원

부표 1-2. 계속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한국수출입은행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우대지원	-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지원기관」.

3.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인적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구매 또는 협업을 통해 구매력을 늘리고 생산 역량을 증가시키는 정부지원정책.

부표 1-3. 생산 능력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11,500억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우수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 주는 사업.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 기간 구매하는 제도	600억 원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400억 원
	중소/중견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사업	중소/중견 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만) 간 전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을 지원	23.5억 원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활동을 지원	적격조합 143개 (2015)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 홍보를 추진할 경우 개발비 및 홍보비를 지원	9.6억 원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국적인 중소기업어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신뢰도 향상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	83.8억 원

부표 1-3. 계속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 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 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120개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소비시장 진출을 지원	125억 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를 지원	54억 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 진입 및 성장기,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115억 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 서비스	8.35억 원
한국수출 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	원가절감형 대· 중소기업 공동사업	대기업- 1차 협력사 또는 1~2· 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가절감형 과제(설계, 디자인 개선, 부품구조 변경, 시제품 제작 등)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18억 원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4. 표준과 인증제(Standards and Certificates): 중소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중소 공급업체가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증명서 또는 산업특성 표준의 보유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부표 1-4. 표준과 인증제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 NRTL 등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	176.5억 원
기술보증기금	녹색인증평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 관련 평가기관으로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확인업무 진행	-
한국무역협회	K+ 인증제도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Korean Made)을 발굴하여, 무역협회가 K+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에 기여	-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지원기관」.

5. 유연성(Flexibility): 고객들에게 빠르게 대응하고, 수요의 변화와 제품 향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은 융통성(adaptability), 민첩성(agility), 그리고 확장성(scalability)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

부표 1-5. 유연성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2,260 억 원
	미래시장 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미래시장 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단의 신시장 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로 중소/중견 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First-Mover로 혁신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13억 원
	FTA 대응역량 강화 사업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국가, 전문분야, 품목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FTA, 수출건설팅을 실시하고 CEO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FTA 체결지역에 현지마케팅(글로벌 마케팅)을 지원	950개 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경영,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용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5만 명 400개 회사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지원기관」.

6. 지정학적 위치(Geographic Location):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환경과 법 또는 규정으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부표 1-6. 지정학적 위치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부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17억 원
중소기업 중앙회	사업조정제도	대기업들의 사업 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 중소기업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
	제도하도급분 쟁조정협의회 운영	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 발생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중앙회 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7. 정보통신기술의 수준(The ICT Level of Business Operation):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준의 전자데이터 교환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교육하기 위한정부지원정책

부표 1-7. 정보통신기술의 수준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 기업청	제품공정개 선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및 부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R&D 역량 부족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378억 원
	중소기업 R&D기획역 량 제고	R&D의 목표 설정,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R&D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	55억 원

부표 1-7. 계속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 기업청	경영혁신플 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 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	40억 원
	생산현장디 지탈화사업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99억 원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책: 지원기관」.

8. 재능과 혁신능력(Talent and Innovation Capacity): 더욱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GVC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급업체의 혁신과 재능을 고취시키는 정부지원정책

부표 1-8. 재능과 혁신능력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투자자복합 금융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의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1,500억 원
	개발기술사 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3,500억 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2017년까지 300개 선정 예정
	창업성장기 술개발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1,888억 원
	민관공동투 자기술개발 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개발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300억 원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 발사업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	57억 원

부표 1-8. 계속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시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3,500억 원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905억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개방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는 사업	1,382억 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	187억 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	40억 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	보증잔액 19.7조 원
기업은행	IP 보유기업 보증부 대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 시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	한도 2,000억 원
KOTRA	글로벌 기업 기술협력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은 R&D 기반의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 운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 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사업	330억 원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9.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 운영의 건전성(Business Integrity)은 기업이 법과 규정, 그리고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행동 정도이며,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부표 1-9. 내재적 강점 관련 정부지원정책

기관	사업	사업 내용	예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	중소기업의 자구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회계기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지원 사업	일반보증 자금 (2016년까지 9조 원 공급)
KOTRA	KOTRA 글로벌 CSR 사업	KOTRA가 우리 기업의 해외 CSR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신흥국을 도우면서 우리 기업, 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법률/법무, 무역/관세, 인사/노무, 특허, 세무/회계, 창업/경영 분야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연간 1만 3,000건 이상

자료: 중소기업청(2016a),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6b),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1.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부표 2-1]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flows)으로 2002년에 18억 8,300만 달러에서 2012년 84억 1,600만 달러로 345% 증가하였다. 산업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20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각각 14%, 13%, 그리고 12%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전체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9%,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산업은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으로 상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2002년 0.2%에서 2012년 1.3%로 588% 증가하였고, 2012년 절대적인 비중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도 2002년 12%에서 2012년 32%로 161% 증가하였다. 반면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의 비중은 2002년 0.6%에서 2012년 0.1%로 77% 감소를 보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도 2002년 13%와 8%에서 2012년 5.3%와 4.1%로 각각 59%와 49% 감소하였다.

[부표 2-2]는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 산업별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하였다.

2002년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14개의 산업 중에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7.32로 가장 높았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과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에서 현시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이 0.07로 가장 비교열위산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4.75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에서 2011년 동안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2002년에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68이었던 비금속광물제품산업이 2011년에는 0.86으로 현시비교열위산업이 되었다. 그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2년에 현시비교우위지수가 0.77에서 2011년 1.71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부표 2-1. 한국 해외직접투자(Flows)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제조업	1,883	2,326	3,582	3,805	5,611	8,137	6,722	4,490	7,148	9,679	8,416
식료품, 음료, 담배	44	57	121	192	270	630	545	261	323	424	309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245	262	352	427	370	432	418	259	425	751	444
목재 및 나무제품	4	5	11	6	11	11	10	12	95	78	1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6	15	41	12	15	24	18	15	41	23	11

부표 2-1.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4	1	39	8	75	36	30	63	173	90	113
화학물 및 화학제품	116	165	183	189	477	690	381	264	1,657	558	35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60	124	110	93	191	229	219	120	85	393	355
비금속광물 제품	26	85	94	116	141	89	137	199	116	117	100
제1차 금속산업 / 금속가공 제품	262	593	346	472	412	782	797	471	567	2,162	1,232
기타 기계 및 장비	56	88	207	114	150	314	457	335	436	399	3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474	410	1,253	896	1,381	1,953	924	761	1,727	1,953	1,61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50	44	88	107	310	306	427	307	203	287	3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229	253	398	778	1,290	1,972	1,884	1,122	918	1,715	2,666
기타 제조업	208	224	340	394	519	669	474	301	383	729	5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부표 2-2.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Flows, 2002~12년)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품, 음료, 담배	0.21	0.23	0.36	0.46	0.46	0.71	0.69	0.46	0.40	0.37	0.30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2.64	2.25	1.72	2.30	4.18	2.60	2.55	2.22	3.46	4.75	5.26
목재 및 나무 제품	0.07	0.09	0.14	0.05	0.07	0.06	0.07	0.13	0.74	0.46	0.1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57	1.21	2.18	0.57	0.34	0.12	0.12	0.13	0.19	0.14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6	0.02	1.04	0.17	1.25	0.46	0.59	1.74	1.95	0.79	0.55
화학물 및 화학제품	0.30	0.36	0.20	0.24	0.35	0.39	0.26	0.28	1.16	0.27	0.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76	4.22	2.89	1.88	2.26	2.06	2.41	1.86	0.81	2.68	2.95
비금속광물제품	1.68	3.93	2.79	2.35	2.00	0.81	1.46	2.97	1.11	0.86	0.73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1.34	2.55	1.14	1.28	1.07	1.03	1.30	1.33	0.74	2.18	1.42
기타 기계 및 장비	0.72	1.02	1.61	0.76	0.62	0.89	1.39	1.42	1.23	0.81	0.3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2.57	2.12	4.11	2.62	2.63	2.77	1.64	2.05	2.88	2.32	3.58

부표 2-2.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32	1.34	1.58	1.54	3.35	2.02	4.09	4.09	1.44	1.46	-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0.77	0.68	0.77	1.32	1.51	1.63	2.39	2.39	1.23	1.71	2.86
기타 제조업	0.76	0.52	0.54	0.63	0.48	0.47	0.34	0.31	0.25	0.35	0.24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 (검색일: 2016. 1.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2.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 우위

[부표 2-3]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으로 2002년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1억 6,800만 달러를 투자해 2002년 총제조업 투자에 23%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8%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억 5,600만 달러로 1위를 유지했지만, 총 제조업 투자에 비중은 17%로 감소하였다. 2002년 2위였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2%인 1억 7,6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다. 2002년에는 단지 3,300만 달러를 투자해 2002년 총 제조업 투자에 5% 미만을 차지하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산업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2012년에는 2억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012년 투자의 13%를 차지하면서 2위를 차지하였다.

[부표 2-4]는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와 수출입은행의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OFDI 자료를 바탕

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5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2.87로 가장 높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2.23으로 2위,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이 1.79로 3위를 하였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5.51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보유했고, 지수가 2.66인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과 지수가 1.85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부표 2-3.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Flows, 2002~12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음료, 담배	13.01	25.05	34.86	42.63	38.56	58.60	29.40	20.94	27.60	29.17	49.3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30.90	138.15	169.03	204.48	237.45	209.90	202.98	123.07	164.30	255.91	176.41
목재 및 나무제품	4.36	4.87	9.06	6.21	8.99	10.53	6.15	4.21	85.55	67.52	3.90
펄프, 종이, 출판, 인쇄	2.97	14.13	27.67	10.15	14.29	23.77	18.12	12.15	29.47	22.19	10.68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4	0.34	6.45	0.08	47.29	23.72	21.76	10.41	3.06	0.58	1.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42.77	57.40	76.70	80.99	103.08	253.14	130.97	46.10	83.81	62.35	43.5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06	17.63	36.45	33.51	48.50	89.15	59.98	25.03	31.00	39.41	49.78
비금속광물제품	8.68	10.13	19.76	29.45	29.69	27.46	33.96	59.39	19.87	21.72	30.39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63.95	101.74	110.66	100.25	133.33	245.26	209.20	129.21	124.91	129.59	81.85
기타 기계 및 장비	44.87	58.68	77.00	78.70	86.71	160.28	139.84	80.95	101.94	114.46	123.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68.39	179.84	333.86	291.93	352.18	406.28	362.66	256.25	299.37	274.41	256.85

부표 2-3.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3.02	22.45	23.23	47.88	63.51	55.86	50.02	40.75	72.10	79.37	57.05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33.75	62.81	106.34	171.48	201.84	299.13	321.94	188.40	227.23	303.32	201.69
기타 제조업	187.31	205.89	317.66	359.45	445.97	542.29	386.24	243.53	307.24	389.61	419.9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부표 2-4.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
(Flows, 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 음료, 담배	0.27	0.14	0.15	0.15	0.13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2.87	6.52	4.86	4.27	5.51
목재 및 나무제품	0.14	0.12	0.14	2.40	1.7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1.23	1.20	0.41	0.83	0.4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0	1.03	0.88	0.26	0.0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27	0.27	0.17	0.25	0.1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78	2.02	1.47	1.45	1.53
비금속광물제품	1.55	1.37	3.53	0.90	0.81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0.71	1.54	1.11	0.87	0.92
기타 기계 및 장비	1.37	1.66	1.50	1.32	1.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2.23	1.96	2.38	2.26	1.8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79	1.54	1.77	2.94	2.66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0.76	1.07	1.02	1.23	1.62
기타 제조업	1.49	1.02	1.12	0.94	1.02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6. 1.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1. 10).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산출 비교된 총 5년 동안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반면에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비교열위를 나타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엔 비교열위 산업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우위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부표 2-5]는 한국 대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으로 2002년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3억 500만 달러를 투자해 2002년 총제조업 투자의 27%를 차지하였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에 1억 9,8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002년에 17.3%를 차지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 1억 9,400만 달러인 17%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산업별 분포에는 2012년까지 오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2년에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 집중되어 2012년 총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에 36%인 24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2년 1위를 차지했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총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에 20%인 13억 6,2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산업이 17%인 11억 5,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6]은 한국 대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로 한국 대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비교우위를 측정하였다. 2005년 중소기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86,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산업이 2.84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에서는 1위였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1.94로 4위에 올랐다. 2011년에는 산업별 비교우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3.26으로 1위,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이 3.11로 2위를 하였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산출 비교된 총 5년 동안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과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은 지속적으로 비교열위를 기록했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비금속광물제품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현시비교우위를 유지하였다.

부표 2-5.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Flows, 2002~12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료품, 음료, 담배	30.78	32.17	86.30	148.88	231.17	571.01	515.58	240.37	295.32	394.89	259.23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13.61	123.84	183.11	222.26	132.65	222.21	214.87	135.61	260.60	495.10	267.13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19	1.62	0.10	2.11	0.79	3.93	7.90	9.03	10.83	11.13
펄프, 종이, 출판, 인쇄	2.93	0.80	13.40	2.10	0.50	0.00	0.00	3.30	11.60	0.59	0.7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55	0.27	32.57	8.41	27.74	12.00	7.77	52.53	170.40	89.52	112.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73.63	107.77	106.31	108.16	373.74	436.89	249.90	217.52	1,573.41	495.40	312.8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48.45	106.71	73.38	59.30	142.55	140.03	159.19	95.10	53.73	353.29	305.36
비금속광물 제품	17.80	75.01	74.19	86.93	111.44	61.33	103.30	139.40	96.00	95.39	69.30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 제품	198.06	491.28	234.97	371.26	278.47	537.12	587.95	341.91	441.77	2,032.77	1,150.63
기타 기계 및 장비	11.01	29.40	130.25	34.84	62.97	153.43	317.04	253.72	333.81	284.96	206.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05.20	229.98	918.84	604.34	1,028.58	1,546.38	561.83	504.89	1,427.50	1,678.43	1,362.46

부표 2-5. 계속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27.08	21.77	64.81	59.58	246.75	250.24	377.22	266.24	131.17	207.51	28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94.79	190.02	291.16	606.86	1,087.76	1,673.10	1,561.85	933.45	690.50	1,411.50	2,463.99
기타 제조업	20.74	17.63	22.54	34.46	72.74	126.94	88.24	57.25	76.15	339.28	104.5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0. 31).

부표 2-6. 한국 대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지수
(Flows, 2005년, 2008~11년)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 음료, 담배	0.58	1.05	0.68	0.45	0.39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94	2.87	2.04	1.92	2.42
목재 및 나무 제품	0.00	0.03	0.10	0.07	0.07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16	0.00	0.04	0.09	0.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8	0.15	1.69	4.08	1.41
화학물 및 화학제품	0.23	0.22	0.31	1.31	0.3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95	2.22	2.14	0.71	3.11
비금속광물제품	2.84	1.73	3.17	1.24	0.81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1.64	1.80	1.12	0.87	3.26
기타 기계 및 장비	0.38	1.56	1.79	1.23	0.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2.86	1.26	1.79	3.06	2.5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38	4.81	4.41	1.52	1.5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67	2.16	1.93	1.06	1.71
기타 제조업	0.09	0.10	0.10	0.07	0.20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World_Investment_Report.aspx(검색일: 2016. 1. 11);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검색일: 2015. 11. 10).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Zukweon

One of the major changes in the current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that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of just a fe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 most of the global business activities. These GVCs are structurally subdivided and regionally dispersed as a result of these MNEs' new strategie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nations and enterprise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growth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process of such globalization is further accelerated by the decreasing costs of coordinat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ctivities and simultaneously provides threats and opportunities not only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als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n secure financial stability, increase productivity and enter the global market by participating in GVCs of the MNEs. However, SMEs require higher levels of financial and managerial resources and face more global competition to successfully participate in GVCs. Due to the many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SMEs that come with participating in GVCs, appropriate government policies providing protec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SMEs in developing, emerging, as well as developed markets (OECD 2007; UNCTAD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Korean SMEs in GVCs through detailed analyses of the current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RCAs) of Korean SMEs. While previous studies on this topic exist,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in three main ways. (1) This is the first time trade in value added (TiVA) is used to analyze Korean SM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2) The methods of Korean SME participation in GVCs are classified by domestic and foreign production, of which competitiveness is measured by domestic value adde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pectively. (3) This study proposes the linkage strategy between Korean MNEs and SME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ir industrial competitiveness.

김주권(金周權)

Marymount 대학 국제경영학 학사

George Washington 대학 국제경영학 석사

Rutgers 대학(뉴저지 주립대학) 국제경영학 박사

Rutgers 대학(뉴저지 주립대학) 강사

텍사스 A&M-CC 조교수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現, E-mail: zkkim@konkuk.ac.kr)

저서 및 논문

『신흥국 기업의 글로벌화 연구』(공저, 2012)

「선진국, 신흥공업국 및 신흥국 글로벌기업들의 글로벌화 결정요인의
비교연구」(공저, 2013)

「신흥국 가전시장의 이질성과 한국계 전자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소고(小考)」
(공저, 2015)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Zukweon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 하나는 세계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GVC는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며, 중소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GVC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GVC의 기본적인 개념, GVC와 한국경제의 관계, 그리고 GVC와 한국 중소기업의 연관 관계를 새로운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9 788932 224176

94320

ISBN 978-89-322-2417-6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